

2016
제52호

속기세

SINCE 1970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CONTENTS

2016 속기계 제52호

- 04 머리말**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 이철우
- 06 인사말**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때 - 이순영
- 08 안녕! 우리말**
국어기본법과 개정된 문장부호 - 정다운 기자
- 13 2015 인터스테노**
제50차 INTERSTENO 총회 참가보고 - 국제부
2015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터스테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 손정아
- 32 연구논문**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및 공표에 대한 개선안
- 정소희·조선욱·이미정
- 50 기획!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무박 9일간의 기록 - 신동선 기자
속기사들만의 뒷이야기 - 홍보부
- 72 기자수첩**
검찰 속기사를 말하다! - 신동선·정다운 기자
여의도국회, 한국 속기의 발전 - 이다교 기자



- 90 세미나**
속기사 지망생이 바라본 속기학술세미나 - 김은주
- 98 새의자**
봄, 윤중로에서 - 윤승희
- 100 새내기 인사**
인생지사 새옹지마 - 양세희
조금 늦어도 멈추진 말자 - 임고은
속기란 이름의 탈출구 - 홍상현
- 112 한글문화큰잔치**
한글문화큰잔치 현장 속으로 - 유준호 기자
- 118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2015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실시 결과 보고
- 권오정 기자
- 122 회원동산**
성찰하는 속기사 - 이근익
대한민국 제1호 속기병 - 이영일
- 134 협회 동정**
제49회 정기총회
- 136 편집후기**



한글, 타자기, 회의록…… ‘속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대한속기협회의 로고를 모티브 삼아 그 안에 속기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배치하여 속기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표지디자인 손아영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철우입니다.

올해로 벌써 4년째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네요.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작년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INTERSTENO) 총회 국제속기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2위와 공동 3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지요. 전 세계 속기인들이 모여 각각 다른 언어로 속기 실력을 겨루는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두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여 애써 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우리나라의 속기 기량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속기협회에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의 한글속기학술세미나부터 시작하여 제52호 속기계의 발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과 한글속기무료강습,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한글날 행사인 한글문화큰잔치 참여 등의 사업으로 각계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



고,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될 인터스테노 의회속기사부(IPRS)에 참가하는 국제교류사업 등 사업 하나하나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기인 여러분!

속기는 대한민국 의정사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법정에서의 재판 기록,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소리 없는 화면에 자막으로 소리를 넣어 주는 역할을 하고, 대학 강의에도 자막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고 묵묵히 속기인의 길을 가는 우리 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록 분야의 전문직인 속기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회장인 저뿐만 아니라 대한속기협회 임원진 모두 합심하여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 철 우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때



존경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이순영입니다.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속기계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속기계가 올해로 벌써 52번째 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970년 첫 발간을 시작한 속기계가 이제는 우리 속기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통로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협회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이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협회가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50차 인터스테노 총회 세계속기경기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이 2위와 공동 3위를 기록하며 한글 속기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협회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이사장으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작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569돌 한글날 행사 ‘한글문화큰잔치’에 새롭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속기를 통해 본 한글의 우수성’이라는 제목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한글속기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명함 제작’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까지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협회에서는 5월에 열리게 될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비롯해 한글속기 무료강습, 지방의회속기실무자과정 연수 실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들 하나하나가 우리 협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속기가 창안된 지도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 속기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속기협회는 반세기가 넘는 협회의 깊은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작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뛰며 협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며,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이 순 영

‘안녕! 우리말’ 사업 소개

정다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의 사업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년 한글문화콘잔치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 및 과학성을 함께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

안녕! 우리말 순회강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고,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바른 언어문화 의식을 일깨워 스스로 공공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활동

안녕! 우리말 청소년 언어문화 경진대회

청소년 문화 속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청소년 스스로 자각하고 올바른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바른 언어와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주제로 하는 창작 경진대회 개최

안녕! 우리말 웹툰

안녕! 우리말과 오묘 작가의 만남으로 탄생된 ‘안녕! 우리말 웹툰’. 웹툰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잘못된 언어문화를 개선

우리말 사랑 노래 ‘노래처럼’ - 부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부활이 공동으로 우리말 사랑 노래인 ‘노래처럼’ 제작

한글날 특집 KBS 도전 골든벨

569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전국적으로 개최

우리나라에 ‘국어기본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어기본법은 한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국민이 국어를 잘 사용하여 삶의 질을 높게 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전체 5장 27조로 구성된 국어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기본법은 국민의 국어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2장부터 제4장까지 나누어 담고 있다.

첫째, 국어를 발전시키고 잘 보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나 도지사는 국어책임관을 소속된 공무원 중에 지정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민이 어려움 없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보급하는 일 <제3장>

정부가 국민이 어려움 없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를 두어 어문규범을 정하고 알리며 국어를 보급하고 국어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 정보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힘쓰고 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일을 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국어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일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어능력을 높일 기회를 골고루 가지도록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밝혔다. ①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①항에서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해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써야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앞서서서 국어 발전과 보존에 나서야 하며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 바로 국어기본법이다.

국어기본법 이전에 국어에 관한 법으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고종이 내린 칙령과 1948년 10월 9일에 공포된 한글전용법이 있었다. 한글전용법은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폐기되었다.

26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 문장부호, 어떻게 바뀌었나?!

1. 왜 개정하게 되었나요?

종전 「문장부호」는 1988년 「한글 맞춤법」 부록으로 제시되었는데 당시의 「문장부호」는 원고지 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 환경에 맞추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부호와 용법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2. 어떤 항목들이 없어졌나요?

새 규정에서 문장부호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포함되

어 있던 수학이나 언어학과 같은 전문 분야의 용법들을 새 규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는 그동안 써 오던 대로 부호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3. 종전 규정을 따르면 틀리는 경우가 있나요?

새 문장부호는 무엇보다 문장부호를 혼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새 규정에서는 그동안 써 오던 대로 문장부호를 쓰더라도 틀리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4. 자판에 없는 부호들은 다른 걸로 대신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가운뎃점(·)’이나 ‘낫표(「, 『』)’ 처럼 입력이 불편한 부호들은 입력이 간편한 다른 부호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주요 변경사항 정리(2015년 1월 1일 시행)

주요 변경사항	종전 규정	설 명
가로쓰기로 통합(24종)	세로쓰기 부호 별도 규정 (가로쓰기 20종, 세로쓰기 4종)	세로쓰기 부호인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 『』)’는 가로쓰기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화살괄호(<), << >>’를 추가.
문장부호 명칭 정리	‘:’는 ‘은점’ ‘;’는 ‘반점’	부호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은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 << >>’ 명칭 및 용법 불분명	부호 ‘<’, << >>’를 각각 ‘홀화살괄호,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
부호 선택의 폭 확대	줄임표는 ‘……’만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가운뎃점, 낫표, 화살괄호 사용 불편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 확대. 낫표(「, 『』)나 화살괄호(<), << >>) 대신 따옴표(‘, “”)도 쓸 수 있도록 함.
항목 수 증가 (66개→94개)	항목 수 66개	소괄호 관련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항목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28개 증가.

(출처 = 국립국어원)

2015년 제50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보고

국 제 부



기 간: 2015년 7월 18일(토)~7월 24일(금)

장 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대표단(총 13명)

- 단장: 이주성(협회 부회장, 국회)
- 대표: 손석련(협회 이사, 한국스테노)
김점동(협회 이사)
김한우(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
안정근(협회 회원)
김병수(협회 회원)
최영림(협회 회원, 국회)

- 전시회 참가

이대선(한국스테노)

유덕자(한국스테노)

- 경기대회 출전

손정아(협회 회원, 국회)

최기예(한국스테노)

김양수(한국스테노)

양세희(한국스테노)

참가국 및 참가인원

30개국, 550여 명 참가(참가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참가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우리나라 속기기계 전시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홍보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 교류 및 현안 논의
- 헝가리 국회 방문과 의회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속기경기대회 참가

INTERSTENO 총회 등 행사 일정

일 자	장 소	일 정
7월 18일(토)	코르비누스 대학 Groundfloor	등록 및 전시회 부스 설치
	코르비누스 대학 Room 2001	Council meeting 1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Aula	개회식 및 환영다과회
7월 19일(일)	코르비누스 대학 I.Ea.	IPRS meeting 1 참가
		Excursion 1 – 부다페스트 버스 투어
7월 20일(월)	코르비누스 대학 3rd floor	Real Time speech capturing competition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I.Ea.	IPRS meeting 2 참가
7월 21일(화)	코르비누스 대학 I.Ea.	Conferences
7월 22일(수)	헝가리 국회	헝가리 국회 방문
	City	Council dinner 참가
7월 23일(목)	코르비누스 대학 Room 2001	Council meeting 2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I.Ea.	General Assembly 참가
	코르비누스 대학 Aula	시상식
	선상	송별만찬 및 선상파티
7월 24일(금)		Excursion 4 – 다뉴브 벤트

INTERSTENO 총회 행사 주요 내용

1. 개회식

총회 개최 장소인 코르비누스 대학 Aula에서 개최된 오프닝 행사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자국 국기를 들고 인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협회 부회장인 이주성 단장이 (한국팀) 대표로 단상에 올랐다.



2. Council meeting(중앙위원회)

2014년도에는 프로젝트를 위해 3000€를 모았지만 2015년도는 2000€에 그쳤다. 올해 예산 중 받은 인터스테노에서 모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2016~2017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의가 필요하다.



인터스테노가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의 책임자를 구하려고 한다. 한 달에 250€를 상정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각국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링, 마케팅, 소셜네트워크 등의 업무나 인터스테노의 로고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업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

원봉사 형태가 아니라 전담자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들은 중역회의를 위해 사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속기사부(IPRS)가 이제 인터스테노와 병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예산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체결되었다.

인터스테노 속기사 자격증의 기본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사항들이 인터스테노가 지지하는 속기사의 조건으로 적합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2016년 9월에 IPRS meeting이 예정돼 있다. 다른 국가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IPRS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중앙위원회는 독일 베를린으로 결정되었다.

3. General Assembly(총회)

2차 중앙위원회 폐회 후 이어서 열린 총회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어 결정된 어젠다들에 대해 순서대로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 투표에 의해 결정된 보드 멤버는 다음과 같다.



회장: Dr. Fausto Ramondelli(이탈리아)

부회장: Rian Schwarz-van Poppoel(네덜란드)

사무총장: Danny Devriendt(벨기에)

Jury President: Georgette Sante(벨기에)

멤버: Keliang Tang(중국)

멤버: Russel Page

4. IPRS meeting

① 1차 IPRS meeting(7월 19일)

IPRS 코디네이터 Rian Schwarz-van Poppoel 사회로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고 주제발표 후에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 주제발표

- Ayse Yedekci(터키): The post-reporting services at the Grand National Assembly of Turkey in the information Age
- John Vice(영국): Interruptions in Parliamentary Reporting
- Eero Voutilainen(핀란드): Eduksi
- new information technology for parliamentary reporting



② 2차 IPRS meeting(7월 20일)

1차 미팅 때와 같이 IPRS 코디네이터 Rian Schwarz-van Poppoel 사회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

- Wouter Zwijnenburg(네덜란드): Short web summaries - the profession of stenographers in the internet era
- Giulia Torregrossa(이탈리아): Dicta and acta at the Italian Senate Assembly reports and tweets: two different era

5. 헝가리 국회 방문

헝가리 국회의사당은 영국 국회의사당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헝가리 정부는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국회의사당을 짓기로 하고 1882년 건축설계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부다페스트 기술



대학교 교수인 임레 쉬테인들이 당선되었다. 실제 건축공사는 1887년에 시작되었고 완공은 쉬테인들이 사망한 1902년에 완공되었다.



현재 헝가리 의회는 단원제이지만 건축 당시에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건물은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지어졌다.

엄격한 신분 확인 후 검색대를 통과하여 들어서면 거대한 중앙 계단이 나온다. 23 캐럿 황금과 수천 개의 보석이 건물 내부

를 장식하고 있으며 곳곳에 프레스코화와 그림,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태피스트리 등이 가득하다. 또한 대표단 방의 복도에 숫자가 매겨진 길쭉한 재떨이가 있는데 회의실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이 이곳에 시가를 놓아두곤 했다고 한다.

빈 회의장에 들어서자 우리 방문단은 속기석의 위치를 궁금해하여 질문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바로 아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6. conferences

오전 1차 세션에서 5개 주제, 오후 2차 세션에서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대표단 중 손석련 이사와 김한우 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이 Current activities in education and the prosecution과 Real time captioning technique for remote local broadcasting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컨퍼런스의 전체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Training and Competencies

- Tibor Varga, Katalin Varge(헝가리): The present state of typing education in Hungary
- Takahiro Sumino(일본): Challenges in implementing Japanese language for Intersteno competitions

▲Speech-recognition in education

- Seokyeon Shon(한국): Current activities in education and the prosecution
- Tatsuya Kawahara(일본): Captioning lectures with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 Tsuguo Kaneko(일본): Supporting technology in bilateral communication for hearing impaired in Japan

▲Live text production and quality

- Kim Hanwoo(한국): Real time captioning technique for remote local broadcasting
- Juan Martinez(스위스): Quality-related criteria with respect to live speech-to-text services
- Patricia Graver(미국): Quality real time text: how to achieve, measure, and utilize it worldwide

▲Parliamentary communication

- Domingo Jose Mazza(아르헨티나): Parliamentary communication and publications: from the process of the law to the quality of the law
- Carlo Eugeni(이탈리아): ParElOn - The online electronic parliament for the new democracy

7. 속기경기대회(7월 18일~7월 20일)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3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종목에 손정아, 최기예, 김양수, 양세희, 이상 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대표로 선발되기까지 예선전과 최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선발된 만큼 발군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한 결과 2위(손정아)와 공동 3위(최기예)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8. 전시회(7월 18일~7월 23일)

인터스테노 총회 개최 장소인 코르비누스 대학 1층 Groundfloor에 한국팀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행사 기간 내내 한국스마트카스의 전시회가 진행됐다. 한국형 속기 장비인 CAS의 다양한 기종이 전시되었고 총회에 참석한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중에는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시연해 보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9. 시상식 및 송별만찬

각 종목별로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리얼타임대회에서는 한국의 손정아 속기사가 2위, 최기에 속기사가 공동 3위의 쾌거를 이루었다.

시상식 종료 후 크루즈에서 송별만찬과 파티를 하며 각국의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미를 장식한 레이저 쇼는 인터스테노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 각 국가별 메달 수상 인원(총 92명)

체코(46), 이탈리아(13), 중국(11), 미국(6), 터키(4), 헝가리(4) 한국(2), 독일(2), 슬로바키아(2) 폴란드(1), 네덜란드(1)



10. 당일투어(Excursion)

이번 총회 중에는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다페스트 시내투어 2개와 EGER지역 투어, 다뉴브 벤트 투어의 4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국대표단은 이번 총회 참가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종목이 열린 20일과 헝가리 국회를 방문한 22일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2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부다페스트 시내 버스투어에서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영웅의 광장, 치타델라, 어부의 요새, 마차슈 성당을 둘러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뉴브 벤트 프로그램 참여로 부다페스트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인 센텐드레, 비셰그라드, 에스테르곰을 돌아보며 총회 기간 중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었다.

■ 성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속기 현황과 의회속기 및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종목에서 2위와 3위를 수상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과시했다.
- IPRS 미팅과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접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가 마련한 만찬은 한중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속기 기술을 홍보했다.

■ 건의사항

- 한국의 선진화된 속기 및 기록문화의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스테노 회원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인터스테노에서는 7종목의 속기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명의 선수가 여러 종목에 동시 출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체코의 경우는 전체 92개 메달 중 46개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어로 출전 가능한 여타 종목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인터스테노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경기대회에서도 11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등 그 위상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한중 간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5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터스테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손 정 아

꿈처럼 찾아온 기회

속기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을 꿈꿔 봤을 국제속기경기대회! 2015년은 인터스테노의 50번째 총회 및 국제속기경기대회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해다. 그리하여 국회에서도 국제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뽑기 위해 내부에서 예선을 치르고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속기사들과 최종 결선경기를 갖게 되었다. 내 생애 첫 번째 국제경기대회 도전인 만큼 나름대로 연습도 많이 하고 치른 결선경기. 그러나 욕심이 너무 컸던 탓일까? 긴장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수가 많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말았다. '아, 헝가리는 이렇게 물 건너가는구나' 하며 실망하던 차에, 정말 꿈처럼 국회 대표로 출전하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출전만 하게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었던 나는 처음엔 그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마냥 신나고 좋기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국회 대표라는 타이틀이 부담되면서 점점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를 결선경기 때처럼 후회로 남길 수는 없었고 이미 출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연습뿐이었다. 아쉬움 없는 8분을 위하여 근무 시간 중 여유가 있을 때면 틈틈이 속기 연습에 매진했다. 출국을 며칠 앞둔 7월부터는 주말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속기 연습을 하며 보냈다.

한국대표단, 출국!

출국 당일, 공항에서 만난 한국대표단. 얼마 전에 사전모임을 한 번 가져서인지 서로 간에 어색함은 덜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협회의 인터뷰에 선수들은 모두 당황했고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생전 처음이었던 나는 그저 부끄럽기만 해서 무슨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장장 12시간의 비행을 거쳐 우리는 경유지인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한국과 6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도착 당시 터키는 그제야 동틀 녘이었다. 헝가리로 출발하는 비행기는 그날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죤모습으로 이른 새벽부터 곧바로 관광을 시작했다.

현지 가이드를 만나 먼저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터키의 명동이라 불리는 탁심 광장을 구경했다. 케밥으로 유명한 터키인 만큼 케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톱카프 궁전, 아야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를 둘러본 후, 지중해 바람을



터키의 아야소피아 성당

맞으며 유람선을 타니 그제야 정말 외국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났다. 시차도 무시한 채 터키 관광을 강행한 뒤 헝가리행 비행기를 탈 때 즈음엔 다들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헝가리로 출발했고 2시간의 비행 후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저녁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호텔로 들어가 쓰러지듯 헝가리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인터스테노 일정 시작

이튿날부터 바로 본격적인 인터스테노 일정이 시작됐다. 총회 장소는 부다페스트 중심에 있는 코르비누스 대학. 코르비누스 대학은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학교인 동시에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멋진 외관을 자랑한다.

인터스테노 총회 개막식에는 35개국에서 600여 명에 달하는 속기인들이 참석해 코르비누스 대학의 넓은 홀을 꽉꽉 채웠다. 역시 속기총회답게 단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은 전면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자막이 되어 나왔다. 인터스테노에 참가한 각국 소개에 이어 헝가리 전통 춤과 집시 음악 그리고 초청가수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총회에 참석한 속기인들은 이미 모두 한마음이 된 듯했다.



인터스테노 총회 개막식



속기장비 전시

대학교 내부 복도는 각국의 속기장비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모델의 속기장비를 전시하였는데 외국의 많은 속기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우리 선수들은 각자 속기 시연도 해 보이고 각국의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망의 경기대회!

헝가리 도착 3일째, 벌써 경기대회 당일이다. 그 전날까지는 시차 적응이 덜 된 탓인지 정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경기대회 날 아침엔 컨디션이 좀 돌아온 듯했다. 나는 부담을 갖거나 욕심을 내면 오히려 긴장해서 역효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막상 헝가리에 도착하고 나니 외국 선수들의 기에 놀려 저절로 마음을 비우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선수들의 실력도 이미 결선경기 때 확인했기에 스스로에게 그다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 사실 내 목표는 소박하게도, 우리나라 선수 네 명 중 꼴찌만 면하는 것이었다.

정말 욕심을 버린 덕분일까? 내가 그렇게 준비해 왔던 국제경기대회라는 게 무색하리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렀다.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 경기 때마다 찾아오곤 했던 저주의 손 떨림 없이 8분간의 시험을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다.

그림 같은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기대회 다음날부터는 한결 훌거분한 마음으로 부다페스트 관광을 시작했다. 경기는 경기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평생 헝가리를 또 언제 오겠나 싶은 마음에 관광팀을 열심히 쫓아다녔다. 성 이슈트반 대성당, 부다 왕궁, 영웅 광장, 어부의 요새, 겔레르트 언덕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세체니 다리……



헝가리의 모든 건축물들이 다 근사했지만 그중에서도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역시나 헝가리 국회의사당이었다. 익히 들은 대로 국회의 내외부 모두 화려할 뿐 아니라 입이 떡



헝가리 국회의 본회의장

벌어질 정도로 그 규모 또한 대단했다. 본 회의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회의장 정중앙에 속기석이 자리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폐막식과 시상식

폐막식 시작 전, 인터스테노 측에서 총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틀어 주었다. 의회속기사부(IPRS) 회의에 참석하여 열중하고 있는 모습, 시차 적응이 덜 돼 피곤해 졸고 있는 모습, 선수들이 각자의 속기장비로 시연하는 모습,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를 치르는 모습 등등…… 그 영상들을 보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그간의 일정들이 머릿속을 주욱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뒤이어 시작된 시상식. 혹시나 우리나라가 3위 안에 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몹시 설레었다. 먼저 시상이 이루어진 다른 종목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맘이 짠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리얼타임 부문은 전체 경기종목 중 하이라이트인 만큼 시상도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리얼타임 부문 시상식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 선수 이름이 불리길 아마 우리 대표단 모두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발표하는 동메달 시상에서 웬 낯선 이름이 불렸다. 미국인이었다. 전면 스크린에 미국 선수의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져 '기예 최, 코리아!'가 불리는 게 아닌가? 공동 3위였던 것이다! 이전 시상식에서는 공동 수상자가 없었기에 우리 선수가 공동으로 3위에 오르

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대표단 측에선 곧바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나 또한 한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해 온 선수로서 무척 기뻛고, 무엇보다 우리 대표단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는 사실에 다행스러웠다. 그런데 잠시 후 이어진 2위 발표에서 '정아 손, 코리아!'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최기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던 때였다. 나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너무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자 앞서 나가던 최기에 선수가 다시 뒤돌아 와 나를 데리고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시상대에 올라서 있는 동안은 무슨 생각으로 있었는지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저 주는 대로 성적표를 받고 목에 메달을 걸고 그냥 그렇게 꿈처럼 지나간 것 같다. 그 상황이 믿기지 않고 얼떨떨하기만 했다. 시상식 후에 협회 측의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그때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안 믿긴다'는 말 한마디만 한 채 눈물을 보인 게 이제 와 생각하니 못내 아쉽다.



시상식 후 기념사진



도나우 강의 야경, 세체니 다리

시상식 후엔 도나우 강 위의 유람선에서 디너파티가 열렸다. 배 안에서 저녁식사도 하고 해가 저문 이후에는 배 갑판으로 올라가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다.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인터스테노 측에서 준비한 레이

저 쇼였다. 인터스테노의 역사와 속기의 발전 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4분여에 걸친 레이저 쇼가 끝나자 각국의 속기인들은 저마다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거렸고, 나 역시 평생 가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다시 일상으로

8박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우리 대표단은 다시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실 헝가리 음식이 입에 정말 안 맞고 날씨도 너무나 더워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뭇 그리웠다. 그런데 돌아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제는 벌써 헝가리가 그리웠다.

나는 사실 해외여행에 그다지 흥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번 외국을 다녀오고 나니 내 시야부터가 달라졌음을 느꼈고 스스로 한층 성장했음을 느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좁은 시야로 좁은 곳만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행이 가장 값진 경험이라는 말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또 은메달 수상 이후 국회 소식지인 <국회보>에 글을 신기도 하고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여 지면에 기사도 실렸다. 그리고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한동안 내 속기장비와 메달, 성적표를 전시하기도 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 쑥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저 얼떨떨하기만 하다. 평범한 일상에 안주할 뻔했던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준 인터스테노 참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메달과 성적표

직접 인터스테노에 참가한 뒤 느낀 것이 있다. 다른 국가들은 여러 종목에 중복해 출전한 선수가 많아서 체코의 한 선수는 총 7개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물론 언어의 특성상 참가가 가능한 종목과 불가능한 종목이 있지만 한글로 참가가 가능한 종목에는 모두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는 시니어(21세 이상) 부문에만 선수가 있었던 데 비해 외국의 경우 퓨필(16세 이하), 주니어(17세~20세) 부문에 출전한 선수들도 많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0세 미만의 학생들이 속기를 배우는 경우가 드문데, 이 대회를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속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썸록 내후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속기경기대회에는 좀 더 많은 선수가 좀 더 다양한 종목에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및 공표에 대한 개선안

정소희 · 조선욱 · 이미정

I. 서 언

우리나라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11개가 등재되어 세계 5위, 아시아 1위의 등재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런 선조들의 찬란한 기록정신을 이어가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회의록이 비공개라는 이유로 서고에 잠들어 멸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더더욱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자유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정보화의 시대로 급격히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헌법에 부여된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2007년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된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를 실시하고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재분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재분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회의체인 국회에서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률이나 정책, 예산의 심의 의결 과정을 가감 없이 작성하여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중요한 회의록 중의 하나인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법 제118조제4항을 보면 비공개 회의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나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제6항에는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비공개회의록 공표에 관한 세부 규칙의 미비와 국회의원들의 공개의지 부족 등으로 비공개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헌 이래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비공개회의록의 관리·공표에 관한 연구조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2004년 12월에 정청래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공표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의 공표에관한규칙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05년 10월 김희선 의원이 제94회 국회 제7차 본회의 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복원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내의 사정으로 17대 말이 되어 자동 폐기되어 버렸다.

본 연구는 제헌 이후 지금까지 국회 비공개회의록과 보존회의록의 불게재 부분 현황을 파악해 볼과 동시에 비공개회의록을 생산 관리 보존하고 있는 국회 담당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논문이나 기고문, 해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비공개회의록이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되고 공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국회에서 발간된 회의체별 비공개회의록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비공개회의록의 생산 현황

비공개회의록은 국회 본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 의장(또는 위원장)의 결정, 국회법 제 54조의2제1항 및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의미한다.¹⁾

1) 비공개회의록 관련 규정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 회의), 국회법 제57조제5항 단서(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본회의 비공개),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불게재 부분), 국회법 제158조(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비공개회의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비공개 국정감사 및 조사 회의록), 인사청문회법 제14조 단서(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비공개 부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증인 보호를 위한 비공개회의 내용)

가. 본회의

본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7대 국회 이후부터 배부용 회의록과 별도로 비공개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고 있다. 2014년 6월 23일 현재 6대부터 19대까지의 비공개회의록은 13건이며, 불계재 부분은 104건으로 본회의는 비공개회의록보다 불계재 부분이 훨씬 많다. 6대 이전의 회의록, 즉 제헌 6건, 2대 24건, 3대 6건, 4대 2건, 5대 2건은 비공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현재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다.

나.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법 제71조에서 법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비공개회의록(정보위원회 제외)은 2014년 6월 23일 현재 제6대부터 제19대까지 비공개 678건, 불계재 346건이 생산되어 비공개회의록(총 922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법 제57조제5항에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9대 국회 소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은 20건으로 상임위원회 25건에 버금갈 정도로 많아졌다.

또한 국정감사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단서로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 2014년 6월 23일 현재까지 국정감사회의록 중 불계재 부분 8건, 비공개회의록 231건이 생산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제14조 단서에 따른 인사청문회 비공개회의, 증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증인 보호를 위한 비공개회의 등의 비공개회의록이 생산되고 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158조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7대 국회는 248회부터 271회까지 전체회의의 36회, 소위원회 17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전체회의의 31회, 소위원회 13회로 총 53회 중 44회가 비공개회의로 개최되었다. 제18대 국회는 278회부터 303회까지 전체회의의 14회, 소위원회 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비공개회의는 전체회의의 7회, 소위원회 4회로 총 20회 중 11회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공개회의록 생산 건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록도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다.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 시 신원조사를 거친 속기사가 속기하고 회의 산회 후 생성·인쇄된 회의록은 의정기록과에서 자체 작성한 표지를 부착하여 1부만 정보위원회에서 자체 보관 중이며, 정보위원회가 신설된 제14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회의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정보위원회 회의 현황(제14대 국회~제18대 국회)

(단위: 회의 차수)

대 별	기 간	전체회의		소위원회		대별합계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제14대	1994. 7. 12~	(1)	14	0	1	1(1)	14
제15대	1996. 7. 9~	0	31	0	2	0	33
제16대	2000. 6. 20~	(1)	36	0	1	(1)	37
제17대	2004. 7. 8~	4	44	2	15	6	59
제18대	2008. 9. 2~	0	45	0	20	0	65
누적합계		4(2)	170	2	39	7(2)	208

주: ()는 공개회의 후 비공개회의로 전환 또는 비공개회의 후 공개회의로 전환한 경우임.
국정감사를 포함한 통계임.

정보위원회 공개회의는 대부분 인사청문회 또는 공청회임.

자료: 국회정보위원회 활동자료집 재구성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한 6대 이후 생산된 회의체별 비공개회의록과 불계재 부분의 현황은 [표2]와 같다.

[표 2] 6대 이래 생산된 비공개회의록(불계재 포함) 현황

(2014. 6. 23. 현재)

구 분	연 도	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계	
		비공개	불계재	비공개	불계재	비공개	불계재	비공개	불계재
제6대	1963.12.17~		1		8				9
제7대	1967. 7. 1~	6	1	6	2	2		14	3
제8대	1971. 7.12~	1	3	3	2			4	5
제9대	1973. 3.12~	4	31	86	75			90	106
제10대	1979. 3.12~	1	3	13	4			14	7
국가보위 입법회의	1980.10.28~			15	1			15	1
제11대	1981. 4.11~		19	68	131			68	150
제12대	1985. 4.11~		35	39	92			39	127
제13대	1988. 5.30~		3	32	9	46		78	12
제14대	1992. 5.30~		1	52	5	31		83	6
제15대	1996. 5.30~			49	3	44	2	93	5
제16대	2000. 5.30~		7	39	9	41	2	80	18
제17대	2004. 5.30			138	1	36	3	174	4
제18대	2008. 5.30~	1		93	3	22	1	116	4
제19대	2012. 5.30~			45	1	9		54	1
계		13	104	678	346	231	8	922	458

자료: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부 자료

주: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은 제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회의체별 비공개회의록과 불계재 부분의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약 74.2%, 국정감사 17.3%, 본회의 8.5%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본회의는 비공개회의가 11대 이후 1건, 불계재 부분은 17대 이후 1건도 없었으며, 국정감사는 2000년 이후로 비공개회의와 불계재 부분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경우에는 불계재 부분은 줄어들고 있으나 비공개회의는 16대 국회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 회의의 공개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공개사유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도 비공개회의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공개회의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현황

현재 비공개회의록은 의정기록과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후, 의장 등이 서명·날인한 책자 회의록 단 1부와 전자파일을 함께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제14대 이전에 생산된 회의록은 컴퓨터의 미도입으로 인하여 전자파일 없이 원고로만 보관 중이다. 특히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의 경우에는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정보위원회 관할 지정장소에 별도로 책자 형태의 회의록 1부만 보관하고 있다.

비공개회의록은 국회법 제62조 단서조항에 ‘의원으로부터 열람 요구가 있을 때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의원에 한하여 열람은 할 수 있으나 외부에 공표하거나 대출 및 복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한편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불계재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록과는 달리 열람 복사가 가능하나 역시 국회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어 있다. 불계재 부분은 일반에게 공표되는 배부회의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정기록과에

서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보존회의록에는 그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3. 문제점

이상과 같이 국회에서 생산된 비공개회의록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개회의록 표지상의 문제점이다.

비공개회의는 회의록의 본문에 의사와 관련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00시00분 비공개회의개시)”와 “(00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로서 표기하고, 공개회의록과 동일한 회수, 차수라 하더라도 별도로 제본하여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므로 회의록의 기본틀에 맞추어 작성된다. 그러나 회의록의 표지 안전란에 비공개회의와 시간이 표기되지 않고 회의록 본문에만 표기되어 비공개회의 개최 여부는 회의록 본문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회의록 표지의 ‘심사된 안전’란에 기재하여 굳이 회의록 본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비공개회의가 언제, 어떤 안전으로 있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회의록 접근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표지의 ‘토의된 안전’란에 비공개회의가 표기된 예를 역대 국회회의록에서 찾아본 바, 2대, 9대, 10대 국회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²⁾

둘째, 비공개회의록 관리상의 문제점이다.

현재 전자화시대 이전에 생산되어 원고 상태로만 보관되어 있는 비공개회의록의 경우

2) 안전란에 비공개회의가 표기된 사례

2대 국회 11회 12차의 “3. 국회의원 필화사건조사 징계에 관한 긴급동의안(비공개회의) / 9대 국회 92회 1차의 “2. 외교및국방에관한보고(비공개) / 10대 국회 103회 2차의 “1. 국회의원(김영삼) 징계에 관한 건(현오봉 의원·최영희 의원 외 156인 발의)(일부 비공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자가 흐려져 가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의 경우 정보위원회 관할의 지정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나, 책자 형태의 회의록 단 1부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를 맞추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인쇄된 활자가 휘발될 우려가 있고, 화재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복원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은 정보위원회에서 실제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회의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요원은 없기 때문에 1994년 정보위원회가 개설된 이후 20년 동안 회의록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보존매체 제작 등을 위해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비공개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의록관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회의록 이관상의 문제점이다.

회의록의 이관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 기록물에 준하여 관례적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가 생산한 비공개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신설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규의 미비로 아예 이관조차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의록의 안전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관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도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기밀을 다루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공개회의록 열람상의 문제점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 장소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이 관례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기기, 사진 촬영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비공개회의록의

안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비공개회의록 공표상의 문제점이다.

현재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비공개회의록(불계재 포함)은 제6대 1963년도에 생산한 것으로, 생산된 지 5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법 제118조제4항 단서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비공개 상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공표에 관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공개회의록이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하게 되면 당초 비공개회의록을 결정한 주체들이 대부분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바뀐 의원들이 해당 회의록의 비공개사유 및 그 사유의 소멸여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표가 무기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공개회의록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표를 위해서는 공표원칙과 공표절차를 좀 더 명확히 정하여 국회법을 개선하거나 또는 현행 국회법에 입각하여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원칙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국회규칙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활성화 방안

이 장에서는 전 장에서 살펴본 비공개회의록의 문제점과 외국의 공개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공개회의록의 공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규칙 제정의 취지와 방향

국회법 제118조에 의하면 국회회의록은 일반에게 반포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공개를 요하

는 회의록도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또는 국회회의록의 작성, 발간, 공표,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비공개회의록 공표를 위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규칙으로 격상시켜 제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규칙을 따로 제정하는 것보다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미비되어 있는 비공개회의록 공표를 위한 세부 절차와 내용을 보완하여 규칙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국회회의록 발간·공표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회회의록 발간·공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본 규칙 안은 현행 국회법에 입각하여 제안한 것으로 비공개회의록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공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제7항에 현행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미비된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3] 제10조 회의록의 배부·공표

제정 규칙(안)
제10조(회의록의 배부·공표) ①~⑥현행과 같음 ⑦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중 불게재 부분(이하 “비공개회의록”이라 한다)의 공표는 제13조에 따른다.

나. 비공개회의록의 이관 근거 및 관리 담당자 지정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비공개회의록의 이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의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만 열람할 수 있어 비공개회의록의 실질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담당자에게 접근권을 부여하고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표 4] 제11조 회의록의 보존·이관

제정 규칙(안)
제11조(회의록의 보존·이관)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중보존매체 제작 등 비공개회의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비공개회의록의 관리 담당자는 회의록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 손상,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다.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장소 지정 및 외부 유출 금지 조항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장소를 지정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관행적으로 열람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해석을 낳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열람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항에서는 열람 시 비공개회의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5] 제12조 회의록의 열람·복사

제정 규칙(안)
제12조(회의록의 열람·복사) ①~③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열람장소는 국회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하되,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하되, 외부로 무단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라. 비공개회의록의 공개시기, 공표절차, 공표방법 등의 신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회의체에서 해당 회의록의 공개시기를 정하여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정하였다.

불필요한 행정낭비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생산되는 비공개회의록의 경우 해당 회의록의 공개시기의 도래 시 공표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제2항에서는 비공개에 상한기간을 설정하였다. 만약 상한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장기간 비공개로 두는 부정적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러 비공개사유가 자연히 소멸될 경우에도 무기한으로 공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항에서는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조

향을 신설하였다. 비공개회의록 공표의 객관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는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항에서는 전 항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비공개회의록의 공표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정 규칙(안)

제13조(비공개회의록 등의 공표) ①국회법에 따라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비공개회의록의 공개시기를 이관 시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비공개회의록의 공개시기는 생산연도 종료 후로부터 30년 이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전쟁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막대한 국가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생명의 위협,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경우

③의장은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의장은 비공개회의록의 공개시기 또는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명 및 회의일자를 국회공보에 공표하고, 국회회의록시스템에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마.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의 구성

안 제14조에서는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 구성, 위원의 자격과 임기, 회의절차, 위원의 정보누설 금지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심의회가 비공개회의록 공개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제14조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

제정 규칙(안)

제14조(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 ①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는 의장이 위임한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은 회의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국회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국회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심의회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바.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특례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도 다른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과 마찬가지로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는 최대 50년까지인 비공개 상한기간을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의 경우에는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50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3항의 신원조사 의뢰에 맞춰 관리 담당자 역시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제4항에서는 정보위원회가 회의록 보관 시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비공개회의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안을 마련하였고, 제5항에서는 국가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일반 비공개회의록과 다른 별도의 전용서고에 보존매체와 함께 보관토록 하였다.

[표 8] 제15조(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에 관한 특례)

제정 규칙(안)
<p>제15조(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에 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되,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p> <p>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공개시기는 정보위원회 소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③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p> <p>④정보위원회는 매년 회의록 생산현황을 작성하여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을 비공개가 해제될 때까지 별도의 전용서고를 마련하여 보존매체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p>

사. 부칙 조항

안 제3조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비공개회의록 중에서 비공개 상한기간이 경과된 비공개회의록 등의 신속한 공표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였다.

[표 9] 부칙

제정 규칙(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기록물관리규정 제4조제1항 중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국회회의록 발간·공표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의장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간된 비공개회의록 중 생산연도 종료 후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비공개회의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IV. 결 언

헌법에 적시된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반 입법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비공개회의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 공개되어야 마땅하나, 관련 근거와 절차상의 미비로 인하여 공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회에서 생산된 비공개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현행 법규와 관리현황,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회의체에서 해당 회의록의 공개시기를 정하여 국회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체에서 정한 공개시기 도래 시 공표될 수 있도록 공표절차를 명확하고 간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공개회의록의 비공개 상한기간을 생산연도 종료 후로부터 30년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비공개회의록이 무기한 공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만

국가안보 및 개인 사생활 정보는 50년간 공개를 유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알권리 차원에서의 정보공개와 비밀보호 유지라는 양측의 모순을 해결하고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비공개 소멸사유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장이 국회회의록공표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절차상의 합리성을 기하였다.

넷째, 법 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근거 등 제반 절차와 열람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관 보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늘어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회회의록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공개회의록 공표에 관한 법규의 정비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정기록과에 근무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공표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법률적 지식과 연구시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비공개회의록 공표절차 및 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연구가 향후 비공개회의록의 공표방안을 마련하는 데 미흡하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본 논문은 속기계 지면 관계로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참 고 문 헌

- 국회사무처 의사국, 국회회의록사례집(본회의편), 2012.
- 국회사무처 의사국, 「2013 영미 의사규칙」, 서울,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정기록과, 국회회의록작성편람, 2013.
- 국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 활동자료집, 2012.
- 김장환,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계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2013.

필리버스터, 무박 9일간의 기록

신동선 기자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장장 192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2월 23일 오후 7시 6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의 발언 시간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넘어서면서 김광진 의원은 유명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

되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수록 속기사 관련 기사들이 인터넷에 실리기 시작했고, '필리버스터 최대의 피해자는 속기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하는 등 속기사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이어졌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역사의 현장과 함께했던 속기사들만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1. 필리버스터란?

'의사방해(議事妨害)'라고도 불리며, 의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안건의 의결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장시간의 발언 이외에도 생략 없는 정식 절차의 요구, 수정안의 지속적인 제안, 퇴장이나 출석 거부를 이용한 의결정족수 미달 행위 등이 있다.

2. 필리버스터의 역사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기원전 로마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로마 원로원은 모든 의사 결정은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이 상대의 입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장시간의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필리버스터 시초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라는 어원은 16세기의 해적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법안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라고 한다.

3.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4월 20일(제6대 국회 제41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며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다. 그 이후 1973년 국회법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생기며 사실상 폐기되었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되면서 다시 허용됐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의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려고 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1회에 한정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의 종료는 더 이상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가 제출되고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 종료하게 되며, 해당 회기가 종료된 때에도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4. 영화나 드라마 속의 필리버스터

1) 영화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 (Mr. Smith Goes To Washington, 1939)



〈사진출처 : 네이버 영화 스틸컷〉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대표작으로 1939년에 만들어진 영화. 필리버스터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로, 우연한 계기로 상원의원이 된 정치 문외한 스미스가 부패 세력과 맞서 싸워 가며 본인의 소신을 지켜 낸다는 내용을 그린 정치 코미디 영화다.

영화에서 스미스는 소년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 직접 법안을 상정하지만 같은 장소에 댐을 건설하려는 반대 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하고 만다. 이에 스미스는 댐 건설을 막기 위해 장장 23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데……

2) KBS2 드라마 ‘어셈블리’ (2015)

2015년 여름에 방송되었던 KBS2 드라마 어셈블리. 실제 국회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 작가가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극 중 진상필(정재영 분)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홀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그는 회기 종료 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 나가 총리 동의를 막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헌법 전문 읽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부르기, 시 읽기, 딸 친구들이 보낸 민원 소개



〈사진출처 : KBS2 어셈블리 홈페이지〉

하기 등을 하며 가까스로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고 결국 24시가 되어 회기는 자동 종료된다.

5. 이번 필리버스터의 진기록들

1) 총 시간 192시간 27분(국회 의정기록과 통계 기준), 세계신기록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6분 김광진 의원(5시간 34분)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12시간 31분)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무박 9일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발언 시간은 무려 192시간 27분에 달했고, 이는 캐나다 신민주당 당원 103 명이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에 반대하며 세운 58시간(기존 세계 최장 기록)을 3배나 뛰어넘는 기록이다.



2) 이종걸 의원, 총 12시간 31분으로 국내 최장 기록

2016년 3월 2일 오전 7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한 마지막 토론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19시 32분에 발언을 종료하며 총 발언 시간 12시간 31분으로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개인 최장 기록을 세웠다.

기존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69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개헌 저지 반대 토론으로 발언한 10시간 15분이며, 세계 최장 기록은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발언한 것이다.

이 밖에 첫 번째 토론자 김광진 의원은 5시간 34분을 기록하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5시



간 19분)을 넘어섰고, 세 번째 토론자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을 기록하며 1969년 박한상 의원(10시간 15분)을 넘었다. 또 이학영 의원이 10시간 33분,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의 기록을 남겼다.

3) 총 속기 시간 192시간 27분, 번문 시간만 1732시간 3분(72일) 소요

2016년 3월 2일자 포커스뉴스는 '65명의 속기사, 10분여의 발언을 회의록으로 만드는 데는 1시간 30분가량이 걸린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는 데만 산술적으로 1731시간 45분, 72일이 넘게 걸리게 된다' 라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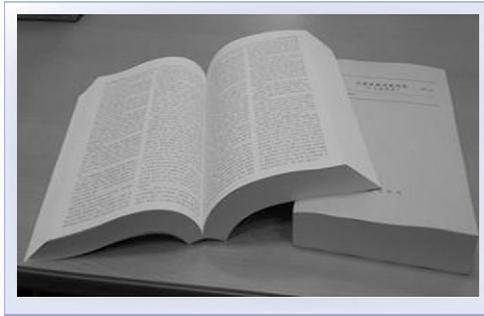
이 기사를 얼핏 보면 '그렇다면 회의록은 72일 후에나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한 기사의 댓글 중에도 같은 의문을 품은 누리꾼이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본다면 72일이지만 국회 전자회의록은 본회의의 경우 바로 다음 날이면 등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0여 명의 속기사가 밤낮 없이 번문 작업을 한 결과 무박 9일 내내 바로 다음 날 전자회의록에 등록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필리버스터만 본다면 속기 시간은 192시간 27분이지만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다른 법률인들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속기는 계속 이어져야만 했다. 그래서 2월

23일 시작된 제7차 본회의(18시 50분 개의)부터 3월 3일 제8차 본회의(02시 17분 산회)까지의 총 속기 시간은 197시간 18분에 달한다. 따라서 속기사는 무박 9일이 아니라 무박 10일간의 속기를 한 셈이다.

4) 소설 ‘태백산맥’ 보다 더 긴 본회의 회의록, 1695페이지

이번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서 회의록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언론에서도 “필리버스터 본회의 속기록 얼마나 길까?”(아시아경제 2016.3.7.)라는 제목으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그 분량이 200자 원고지로 1만 9014장으로 나타났다.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전 10권)이 원고지로 1만 6500여 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



6. 회의록 속 돌발 상황

192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었기에 회의장 내에서는 돌발 상황이 속출하기도 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순간, 본회의 회의록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1) 필리버스터 중 박수 치는 방청객

L 의원의 발언 도중 방청석에서 소란이 생기면서 참관인이 국회 의회경호과 직원에 의해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다. 참고로 과거 본회의 중 방청석에서 소란이 생긴 사례는 1954년 11월 29일(제3대 국회 제19회 제91차) 본회의와 2001년 10월 31일(제16대 국회 제225회 제16차) 본회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L 의원 발언 중

(「입법부가 제대로 못 하니 입법 비상사태지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법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부칙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선거구 획정을 갖다가 야당에서 얘기했던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 담당하시지요?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사람 있음)

(「아니, 법에 대해서 부칙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방호과 직원님, 방청석에 조용히 하실 테니까 그냥 두세요.

우리 방호과 직원님, 방청석에 조용히 하실 테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앉아 계시게 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세금을 낸 주인들이십니다.

방호과 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방청석 소란)

의원님 한 분 가서 좀 말려 주세요.

(「방청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청하게 하세요.

(「정중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신체에 해를 가하지 마세요.

2) 발언 도중 A 의원, “생리 현상이 급합니다.”

A 의원이 발언 도중 생리 현상으로 사회자에게 잠시 자리 이석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생리 현상이야말로 발언 의원들에게는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 보유자인 미 상원의원 스트롬 서먼드는 필리버스터 중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미리 사우나까지 다녀오며 땀을 빼기도 했으며, ‘필리버스터 중 화장실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

○A 의원 의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말라서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지금 **생리 현상이 급합니다.** 그래서 3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화장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예, 여기 본회의장에 부속된 화장실이 30초면 가니까 잠깐 이용하고 바로 오시지요.

○A 의원 1분 주십시오.

○부의장 이석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관행은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면 그것으로 또 새로운 관행이 시작됩니다. 어려워도 새 길을 내면 그 새 길로 다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간 생략--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돌출적인 제안을 받았는데요, 화장실에 빨리 갔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 그런 진행이 좀 못마땅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점도 인간주의라는 입장에서 폭넓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 오셨네요.

7. 언론 속의 속기사

언론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수록 속기사들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도 속기사 이야기가 방송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4일째… ‘국회 속기사 극한직업’ 응원”(news1 2016.2.26.), 이 기사와 함께 속기사가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누리꾼들의 응원 또한 이어졌다. 또한 속기사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총 투입 인원, 원고 번문 시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속되는 필리버스터에 국회 속기사들도 날밤”(데일리한국 2016.2.25.), “5분 내용 회의록 만드는 데 1시간, 속기사의 고난”(YTN 2016.2.25.) 등의 제목으로 속기사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이어졌다.

또한 TV조선의 프로그램 ‘강적들’에서는 2016년 3월 9일 ‘19대 국회 성적표’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속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기도 했다.



8. 맺음말

‘웨스트윙’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주인공이 남긴 말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민주주의가 뭔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순간을 지켜보았으며 또한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무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세계신기록까지 세우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할 만큼 필리버스터는 우리에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확인하기 어려운 발언 때문에 자료를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이야기부터 사무실에 전기장판과 매트를 깔고 쪽잠을 청했던 이야기까지, 이어서 홍보부에서는 국회 의정기록과 속기사들만의 필리버스터 뒷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고 문헌

- 전진영,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논의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2.5.1.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진우, 문화 속 필리버스터… 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포커스뉴스>, 2016.2.24.
정준성, 필리버스터, <경기신문>, 2016.2.25.
두산백과,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위키백과.

필리버스터, 속기사들만의 뒷이야기

일시: 2016년 3월 15일

참여: 국회 의정기록과 속기사 [정영희(22년 차), 박소연(16년 차), 지성숙(10년 차),
이태범(5년 차), 정현석(5년 차)]

홍보부 [조윤희(사회), 권오정, 신동선]

좌담에 들어가며

사회 대한속기협회 홍보부에서 제52호 속기계 기획 특집으로 마련한 ‘필리버스터, 무박 9 일간의 기록’, 당시 필리버스터 현장을 기록했던 국회 속기사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필리버스터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몸소 겪으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여기 계신 속기사분들 중에서 가장 경력자이신 정영희 속기사님부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영희 제가 입사한 지 올해로 22년 차 되는데요. 교과서에서 봤던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처음 겪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굉장히 어안이 병병하고 이게 진짜인가 반신반의하다가 하루 이틀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다시 가다듬고…… 아무래도 연차가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관리 잘하면



서 무사히 사고 없이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저는 부무와 같이 2인 1조 체제로 하다 보니까 팀워크를 이루면서 끝까지 잘해야겠다 그런 다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면서 처음 겪은 일이었고, 무사히 큰일 없이 끝나서 다행이고 보람 있었어요.

이태범 이번에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필리버스터도 나왔지만 언론에 지금처럼 속기사가 조명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쉬는 날 우연히 한번 JTBC를 봤는데 저희 9명 신입직원들이 카메라에 되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입사한 지 한 2~3년 정도 지났을 때 방송에 얼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필리버스터 덕분에 언론을 좀 탄 거죠. 그런 것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192시간 버티기 노하우

사회 이번 국회 필리버스터 7차 회의록 분량이 무려 1695페이지가 나왔다고 해요. 시간상으로는 192시간 27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속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성숙 처음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다고 예고 같은 게 뜨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질까, 설마설마 했는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영부영 이렇게, 피곤하지만 그래도 참고 지내다가 이게 하루 이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휴게실에 가서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집에서 이불이랑 전기장판이랑 돛자리를 가지고 와서 자리를 폈어요. 그래서 힘들면 거기에 좀 누워 있다가 다시 또 일하고 그렇게 했어요.



박소연 진짜 하루 종일 밤까지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너무 저려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죠.

사회 여자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직원휴게실이 있어서 쪽잠이라도 잤던 것 같은데, 남자직원들은 어디서 쉬었어요?

이태범 공식적으로 남직원휴게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 본청에 기자휴게실이 있어요. 보통 거기로 쉬러 가곤 했는데 좀 협소한 편인데다 기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자리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청 4·5·6층에 정부 측 직원들이 TV 보고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좀 불편한 소파이기는 한데 의자 붙여서 쪽잠 자기도 하고 했지요. 아니면 사무실 책상에서 엎드려 자기도 하고요.

정현석 저는 제 전용 자리가 있어 가지고요.

(웃음소리)

6층에 내려가면 의자랑 테이블이랑 이동하지 말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테이블만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2개를 붙여 가지고 침대처럼 해서 그렇게 잤어요.

박소연 진짜 피난민 생활이 따로 없다.

정영희 그리고 나는 새벽에 왜 그렇게 배가 고파? 그런데 또 과한 것은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에서 견과류, 과일 이런 것을 싸 들고 와 가지고 새벽에 먹었어요.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물건이 늘어나. 집에서 가져오는 거죠.

박소연 우리는 분식, 치킨, 김밥 이런 거 계속 사 먹었어요.

정말 마의 시간대가 3시에서 7시야. 너무 피곤해서 원고할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의장에서도 한 5시~6시 되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성숙 저희 방 선배 같은 경우에는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7시경에 회의장에 들어가서 앉더니 '나 너무 졸려' 그러면서 자기 손을 막 꼬집으면서 속기를 하더라고요. 또 의원들이 천

천히 말하니까 더 정신이 혼미하고.

박소연 빨리 말하면 더 정신을 차리는데 천천히 하나까……

정회 없는 필리버스터, 그리고 위원회까지

지성숙 저는 정회와 속개가 없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타임 뒤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회 저희 방은 법사위원회 담당이어 가지고 필리버스터 끝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위원회 까지 대기를 해야 돼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아침 9시가 됐는데 또 오후 1시까지 대기를 해야 했어요. 회의는 안 열린 채로 1시까지 대기를 하다가 옆방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퇴근을 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영희 우리도 처음 밤을 새우고 9시에 교대를 했는데 교문위 회의 때문에 담당 방은 퇴근을 못 하고 1시까지 소위 속기를 서너 시간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방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1시부터 한 5시경까지 계속 회의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서 한두 시간 자고 점심 먹고 1시에 출근했지요.

사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겠네요.

정영희 그때야말로 정말 힘들었던 거 같아.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 시작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까 뒤에도 계속 힘들었지. 위원회까지 했던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 필리버스터만 해주면 오히려 감사한 거야.

돌발 상황, 고민의 연속

박소연 그리고 이번에는 보통 때와 다른 게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방청석에서 리액션이 많이 나오니까 불안하더라고. 나는 황당한 게 있었는데 어떤 의원이 말을 하다가 갑

자기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다가 ‘고맙습니다’…… 그 상황이 의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방청석에서 손을 흔든다거나 이러는 건데 의원님이 일일이 대답을 하니 그 상황 표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회 그렇겠네요. 회의록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박소연 그런데 회의장 내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을 적는 게 회의록이니까. 방청객은 따지면 발언권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영희 우리가 그동안 속기를 해 왔던 체제에서 많이 벗어났고 무너졌지, 처음 겪는 상황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그랬던 것 같아.

박소연 게다가 내용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의원님들은 작정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려운 논문, 이름도 낯선 제3세계의 사람들…… 그래서 논문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찾아보고……

정영희 시, 소설……

박소연 노래도 부르시고 책도 읽고……

사회 의원님들이 온라인 댓글까지도 하나하나 죽 읽어 주는데 속기사는 명확치 않은 발음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정영희 의원님이 트위터에 팔로우 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 ‘이대근’인지 ‘이대건’인지 모르잖아요. 새벽 시간에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통화가 안 되면 기다렸다가 다시 통화해서 확인을 하고 했어요.

지성숙 우리는 2과3담당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새벽에 우리 방에서 새로운 의원님이 발언을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방에서 자료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새벽이지만 혹시나 하고 의원실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 없이 어떻게든 검색을 최대한 해 가지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다른 직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다 받아서 공유를 해요. 그래서 편하게 원고를 할 수 있었지요.

사회 어떤 의원님은 속기사한테 갑자기 본인 발언한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셨던데요?

정영희 의원님이 속기사한테 ‘저 지금 발언한 지 몇 시간 됐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한 걸 나중에 다 공유해 가지고 속기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 의원님은 지금 몇 시간 됐구나, 약 3시간 정도 됐네’ 하면서 속기를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면 답변해 드려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거지.

당내소란 대처법

박소연 나는 마지막 날 본회의장이 엄청 시끄러워서 차라리 그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국회의장님이 신상발언 하신다고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고 여당에서 얘기하고 의석발언 들리지도 않는데 소리 지르고……

지성숙 그때 정말 우리 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니터 앞에 있었어요.

사회 우리가 다 모니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속기하고 있는 속기사가 누구냐 했는데 박소연 속기사인 걸 보고……



박소연 나는 초월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힘들다,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이 상황에 내가 앉아 있구나’, 집중은 하지만 들리는 건 없고, 그래도 최대한 듣고 와야지 회의록이 나오니까……

사회 속기 시간이 10분이었는데 회의록이 나오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박소연 검토까지 끝나니까 4시간 넘게 걸렸어요. 밤 9시 40분에 회의장 들어갔다 와서 원고를 했는데 새벽 1시 20분인가 원고를 냈어. 그런데 그 중간에 12시 20분인가 회의장을 또 갔어야 해서 원고를 다 못 하고 초고 상태로만 해 놓은 상태에서 회의장을 들어갔는데 하필 예정된 의사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원고를 해야 계장님 검토도 하고 편집도 검토를 하고 아침에 회의록이 나오는데 나 때문에 회의록이 안 나오겠다’, 너무나 긴장이 돼 가지고…… 그런데 추가상정이 서른몇 건이 돼 가지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와서 다시 원고를 했지요.

(웃음소리)

지성숙 그다음 순서가 저희 방이였잖아요. 선배님 끝나고 나서부터는 독짬(1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짬들이 의석발언을 보고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려고 독짬(1인)이 온짬(2인 1조)으로 묶어서 들어가고, 우리 방은 그나마 좀 잠잠해졌는데 다시 시끄러워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보이스코터를 여러 개 냈어요.

박소연 나는 부무가 있으니까 이 원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10분 내내 그렇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땀다’고 하듯이 10분 내내 땀는데 이 원고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후배한테 각자 원고를 하자고 했어. 어차피 중간에 부무 원고를 봐 주느니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원고를 하고 후배는 후배대로 최선을 다해서 원고를 서로 맞춰 보자, 그래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원고를 했지. 왜냐하면 앉은 위치가 다르니까 들리는 소리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완을 했지.

정영희 나도 정식 발언하는 의원님의 발



언을 일단은 열심히 속기를 하지만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 입을 보며 속기했지. 의석발언이 나오면 너무 멀고 마이크도 없어서 안 들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꼭 속기를 해야 되니까.

사회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면서도 속기사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음성인식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한계가 있지요.

업무 방식

사회 아까 언론을 탔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우리 속기사들도 부각이 많이 됐었지요. 속기사에 관한 언론 기사 댓글을 보면 ‘고생한다, 극한직업이다, 힘내시라’는 이런 격려의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 속기사의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소연 일단 회의장에 가기 전에 어떤 회의를 하고 있나 회의장을 모니터해야지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가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 본회의 같은 경우는 10분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에 들어가니까 10분에서 25분까지 회의마다 속기 시간 차이가 있고, 속기를 하고 와서 그다음 번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요.

사람들은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면 회의록이 당장 나오는 것 아니냐, 컴퓨터속기인데 바로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말을 한 것이 글자로만 찍혀져 있는 거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체제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10분짜리 원고는 거의 1시간 반이 걸리고요. 25분짜리 원고는, 보통 그런 것은 소위원회라는 것인데, 회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안 들리는 것도 많고 찾아봐야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10분짜리가 1시간 반이라고 해서 딱 3시간

반, 4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거지요.

사회 일명 ‘탄 원고’와 ‘타지 않은 원고’.

(웃음소리)

박소연 또 내용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면 공부해 가면서 원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정영희 언론에서 ‘10분 속기한 것을 번문하는 데 1시간 반 걸린답니다’ 이것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게 나는 궁금하더라고. 사실은 회의록 작성하면서 자료도 찾고 의원실에 확인도 해 보면서 부무와 주무가 계속 같이 작업하고 또 계장님 검토도 있고…… 그래서 계장님 검토 끝나고 ‘오케이입니다’ 하고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화장실도 가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회의장에 가야 해서 2시간 정도는 긴장을 놓지 않는 거지. 그것을 24시간 내내……

사실 1과·2과 나눠서 했으니까 제대로 보면 한 30여 명 정도의 인원이 1인당 5분씩 속기하는 거잖아. 기사에는 65명이 24시간 교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인원을 반 나눠서 1과·2과 체제로 해 가지고 24시간 내내 그렇게 계속 시스템이 돌아간 거니까…… 2시간 정도 최대한 집중해서 원고하고 한 1시간 정도 바닥에 돛자리 깔아서 쪽잠 자고,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다시 회의장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24시간 내내 제대로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박소연 그런데 힘들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어떤 의원님 말씀은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비하인드스토리 이런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해 주니까……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교대 타이밍인 거지. 빨리 이 이야기가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을 안 맺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저는 교대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웃음소리)

회의장 밖 사연들

사회 여기 계신 속기사분들 중에서는 신혼부부도 있고 또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신데,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개인 사정들은 어땠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현석 저는 와이프가 다음 달에 출산을 할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산부인과를 같이 짬 내서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혼자 갔는데 그날 병원에서 '애가 거꾸로 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혼자 병원에 가기도 했고 첫애니까 당황하고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와이프는 혼자 집에서 울고 있고…… 퇴근하고 가면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태범 저는 필리버스터 기간이 결혼한 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좀 늦게 끝나던 때였어요. 저녁 10시에 오고 11시에 오고 그때 오면 사실 혼자 두고 자게 하기가 되게 미안하지요.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처가댁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서 사위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

(웃음소리)

박소연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 우리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영희 나는 필리버스터 시작하고 딱 다음 날 남편이 출장을 갔어, 이 사람이 말이야. 어쨌든 다음 날 바로 출장을 가 가지고 이종걸 의원이 마지막에 마무리한다 하던 날 귀국했거든.

워킹맘이다 보니까 이럴 때 힘든 것 같아. 외할머니께 부탁해서 아이를 케어했는데 할머니도

건강하지 않으시니까 죄송스럽고. 할머니는 ‘언제 끝나냐?’ 맨날 답 없는 질문을 나에게……
아들도 ‘엄마, 오늘은 들어와, 안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

박소연 우리 애들도 끝났다고 하니까 환호를 했어. ‘엄마, 끝났어요? 이제 밤에 잠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정현석 마지막 날에는 되게 희망고문이었잖아요. 종결한다는 기사가 미리 나서 2과는 출근 안 할 줄 알았어요.

정영희 마지막에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필리버스터 종결한다는 기사가 난 거야. 집에서 그것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드디어 끝나는 건가?’, 옆에서 아이는 자고 있는데 혼자 기사를 보면서 몇 명 더 하고 나서 이종걸 의원을 끝으로 종결한다기에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 ‘드디어 끝나는구나. 정말일까?’ 그랬는데 그러고 이틀 더 했잖아.

이태범 집이 거리가 먼 사람들은 더 힘들었어요.

정현석 제가 편도 35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퇴근할 때 정말 긴장해서 갔어요. 사고 나지는 않을까 막 꼬집으면서 가기도 하고……

사회 맞아요, 졸음운전.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니까요.

정현석 예, 날씨 추운데도 졸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열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랬지요.

정영희 1과는 일요일, 삼일절 등 공휴일에 계속 출근해서 일하니까 그때도 아이한테 되게 미안했지. 눈 펴고 내릴 때도 밖은 너무 아름다운데 나는 계속 일해야 되니까.

좌담을 마치며

사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세요.

박소연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 라고 하는데 쟁점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뿐이지 정말 많은 논의가 되었고 국회가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 제가 복지위 담당인데 복지위에

서도 법안 정말 많이 다루었죠. 그런데 쟁점인 테러방지법,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일은 열심히 많이 했다는 것.

지성숙 그 전에 업무를 할 때도 방에서 서로서로 협조가 있긴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과 전체적으로 서로 동조하고 협조하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정영희 지금은 끝난 게 믿기진 않지만 주변에서 수고했다고 많이 격려해 주니까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속기사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결과도 나오고 격려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박소연 우리 속기 경력 중에 이런 필리버스터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 못 할 수도 있는데 경험을 해 봤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성숙 의미는 있으나 한 번으로 족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웃음소리)

사회 국회 의정기록과 속기사분들 모두 긴 시간 동안 불철주야 회의록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속기사를 말하다!

검찰청 제1기 속기사, 손자현 님과의 인터뷰

신동선 · 정다운 기자



지난 2007년, 검찰이 영상녹화조사 과정에 속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검찰에 속기사가 채용된 지도 벌써 8년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검찰 속기사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많았고 또한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홍보부는 검찰 속기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속기사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우리나라 제1기 검찰 속기사이신 손자현 님을 만나기 위해 서초동으로 향했다.

홍보부(이하 홍) : 먼저 속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또 많은 속기 관련 직종 중 검찰에서 근무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손자현 속기사(이하 손) : 저는 어릴 때부터 메모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지인 소개로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속기를 좀 더 빨리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사람을 잘 구별하기도 했어서 제 적성과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요.

또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원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꼈었지요. 그러다가 검찰에서 속기사를 처음 등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뭔가 몽

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2월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입사하게 되었고 현재는 대검찰청 속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홍 : 저희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2008년부터 속기사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왜 속기사를 채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손 : 검찰청에서 2007년에 영상녹화조사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상녹화물은 말 그대로 영상 매체니까 그것을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지요. 그래서 그것의 서면화 작업을 위해서 속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공고가 2008년 하반기에 나서 제가 채용된 게 2009년 2월이거든요. 제가 검찰청 1기 속기사인 거지요.

홍 : 현재 검찰청에 몇 분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나요?

손 : 2009년에는 속기사가 28명밖에 없다가 2013년에 54명을 새로 추가로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28명밖에 없었을 때는 지검 단위에만 속기사가 있다가 54명이 들어오면서 지청에도 다 배분이 됐는데 모든 지청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1명 아니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 : 검찰 속기사의 자격 요건과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손 : 검찰 속기사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속기사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28명으로 일반임기제 7호, 그러니까 7급 상당이고 직급으로는 검찰주사보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임기가 5년이어서 5년이 지나면 자동 퇴직이 되고 재공고를 띄우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격 요건은 한글속기자격 1급 소지자이거나, 3년 이상의 속기 실무 경력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속기 분야 실무 경력자, 이 3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대부분 속기 경력이 있고 한글속기자격 1급을 가진 분들이 채용되고요. 제가 2008년에 시험을 봤을 때는 서류전형 다음에 실기시험, 면접까지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처음 이후로 실기시험은 안 보고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실시하고 있어요.

또 기간제 속기사의 경우는 54명이고 8~9급 정도 대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기간제 속기사는 2013년에 처음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격 요건은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기간제 속기사 역시 대부분 속기 경력이 있고 한글속기자격 2급 이상을 가진 분들이 채용됩니다.

홍 : 가장 궁금한 부분이 검찰 속기사들의 업무 부분인데요.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 : 저희는 영상녹화 때문에 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상녹화실에서 검사님들이 조사를 하시면…… 영화 ‘내부자들’ 보셨나요? 거기 보면 영상녹화실 안에서 검사님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실제 모습은 아니고, 테이블에 컴퓨터가 있고 검사님과 피의자가 앉아 있고 속기사가 바로 옆에서 컴퓨터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거든요. 모니터는 검사님과 속기사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피의자가 확인을 하고 간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따로 번문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출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속기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사진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또 검찰은 교대 없이 속기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속기를 해요. 조사 시간도 최소가 1시간이고요. 길면 새벽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중간에 속기사를 교체할 수 없는 게, 조사가 굉장히 심리 싸움이어서 속기사가 교체되면 조사의 흐름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하는 내용은 거의 수정 없이 모든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님이 질문을 ‘홍길동 씨, 뭐 흠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흠쳤는가요?’ 이렇게 조금 정리는 하지만 답변은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작성해요. 피의자의 행동이나 표정, 상황 표시도 함께 하는 편이고요.

홍 : 그러면 혹시 영상녹화조사 속기 말고 다른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손 : 저희 업무가 조사 속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녹

취 업무예요. 영상녹화가 무조건 속기사가 배석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속기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속기사가 못 들어갔을 때는 그 영상 녹화를 CD로 구워서 나중에 기록에 첨부하게 되지요. 그러면 속기사는 그 CD를 녹취를 해요. 또 압수수색한 휴대폰 안에 있는 녹음물도 녹취를 하고, 대부분 증거로 활용되는 것들을 녹취하고 있습니다.

홍 : 속기사님은 지검과 대검 모두 근무해 보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손 : 일단 지검은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수사 업무에 속기사가 투입되어서 실시간 조사 속기, 사건 관계 녹취록 등을 작성하고 검찰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회의록도 작성을 해요. 반면에 제가 있는 대검은 회의 위주로, 대검 주제로 외부 위원들을 모셔서 하는 회의나 내부에서 하는 TF 같은 것들을 속기하고 있어요. 또 검찰 속기사 교육 같은 전국 검찰 속기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는 업무를 하고 각종 속기사 관련 행사도 주관하고요. 그렇다고 녹취록 작성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큰 사건에 대해서는 녹취 업무도 하고 있어서 제 경우에는 행정과 속기가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홍 : 검찰청 속기사가 되면 처음에 어떤 교육을 받고 실무에 들어가게 되나요? 또 실무 기간 중 받는 교육들이 따로 있나요?

손 : 제가 대검에는 2014년도에 왔는데 그때까지는 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 내용이 없었어요. 새로 들어오면 제일 선임이 신입 속기사가 한 녹취록이나 속기를 보면서 같이 수정을 봐주는 식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 2016년 4월 1일에 대검에서 2년 미만 저경력 속기사들을 모아서 제가 한 번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교육 내용은 실무 교육도 했었고, 그리고 검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용어 같은 것도 설명이 되어야 돼서 검사님 두 분이 형사법을 강의해 주시고 저와 중앙지검 속기사 한 분이 같이 실무 강의를 맡아서 했어요. 그게 검찰에서 처음 있었던 단체



교육이라서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또 작년부터는 전국 검찰 속기사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그것도 아마 매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루 일정으로 교육이 반이었고 간부들과의 질문·대답 이런 시간도 있었고요. 저희의 처우에 대해서 간부님들께 얘기하고 대답해 주시는 시간도 갖고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홍 : 검찰 속기사들만의 정기적 모임이라든지, 따로 소통 방법이 있나요?

손 : 2012년까지는 전국 검찰 속기사가 단 28명뿐이었기 때문에 친교 모임을 1년에 한 두 번씩 하곤 했는데 2013년에 갑자기 수가 늘어나면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또 공지사항 같은 것은 검찰 내부망의 메신저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홍 : 검찰 속기사로 근무하시면서 힘든 점, 좋은 점이 있다면요?

손 : 가장 힘든 점이라면 검찰청은 병원으로 치자면 항상 응급실이에요. 하나 다 끝내기도 전에 새로운 게 터지고 또 터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것 같아요. 스케줄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는데 검찰청은 그걸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검찰청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속기사만의 불만은 아니에요.

보람되고 좋았던 점은 바로 앞에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를 보고 속기를 하니까 보람도 그만큼 더 다가와요.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법원 판결을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피의자가 뉘우치거나 피해자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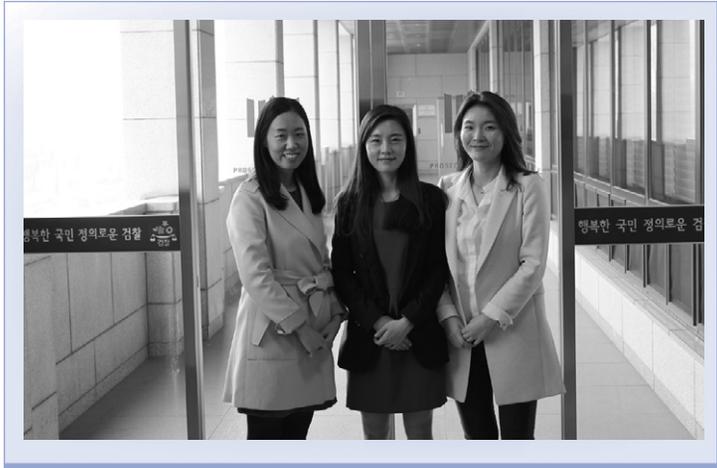
홍 :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손 : 저는 스물네 살에 검찰에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조사 속기 맡은 게 토막살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영상녹화실 밖 모니터실에서 속기를 하는 줄 알고 들어왔었는데 바로 앞에서 피의자를 보면서 속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무섭고 적응 안 됐는데 그래도 억울한 사람은 제가 한 자라도 틀리지 않게 잘 속기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입하니까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홍 : 끝으로 검찰 속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손 : 사실 속기사로서 남자들은 취업이 조금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법원은 거의 안 뽑는데 검찰청은 대환영이에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력도 그렇고요. 현재 검찰청 82명 중에 남자분은 10명 미만이거든요. 현재 함께 근무하는 여자 속기사분들도 정말 잘 해내고 있지만 남자 속기사분들은 검찰청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손자현 속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의도국회, 한국 속기의 발전

이 다 교 기자

올해 속기계 52호에서는 ‘여의도국회’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성경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기 23장 10절)’라는 말이 있다. 이 구절처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국회’는 여러 수난을 겪고 나서 생겨난 고난의 산물이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 이후 제헌국회가 성립되었으나 한국 전쟁 때는 피난으로 대구·부산 등지의 극장을 전전해야 했다. 이후로도 5·16으로 국회가 해산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민정이양으로 개원된 6대 국회부터 태평로에 있는 시민회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 등지를 튼다. 이른바 ‘태평로국회’ 시대가 열려 9대 국회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국회’는 1975년에 세워진 것이다. 현재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연간 수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민의의 전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번 호에서는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건립되는 과정과 1980년대 이후 속기계의 변화 순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모래벌판인 ‘너섬’에서 고층빌딩군 ‘여의도’로

여의도는 고려시대에 죄인을 쫓아 보냈던 귀양지로 배로 건너야 했던 모래섬이었다. 작은 새강을 사이에 두고 영등포와 떨어져 있는 한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었던 것이다. 여의도가 모래밭이었다는 점은 여의도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의도는 옛날에 한자로 잉화도(仍火島), 나의를(羅衣洲)라고도 적었는데, 이를 고유어로 풀면 ‘너(나)벌(불)섬’, ‘너섬’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며, “너벌섬은 ‘너른 모래벌판 섬’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혔다.¹⁾

여의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별로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잉화도(여의

1) 배우리, 한국명어학회 회장

도)는 서강 남쪽에 있고 목축장이 있다. 사축서와 전생서의 관원 한 명씩을 보내 목축을 감독한다”라고 실려 있다. 조선 초기부터 이곳이 말이나 양 등을 기르는 국립 목축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양말산(養馬山·羊馬山)이라는 이름도 목축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모래땅이었던 여의도는 1916년 간이비행장을 만들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김포비행장이 1936년에 건설된 후에도 여의도비행장은 그대로 존속되었고, 1945년 광복 후에는 미군이 사용하였다. 광복 이후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해방 전에는 일본군 비행장이 있었던 탓에 민간인 주거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양말산 기슭에 20평 남짓한 살림집 50채를 지어 만주·일본에서 귀국한 50가구를 살게 하였다. 이들이 여의도의 첫 정착민이었다. 1세대 주민들의 여의도 생활은 20년 정도밖에 가지 못하였다.

1967년 ‘불도저 시장’이란 별명의 김현옥 서울시장은 한강 개발에 시동을 걸었고, 그 첫 사업이 바로 ‘여의도 윤중제 공사’였다. 김 시장은 1968년 밤섬의 돌과 흙, 여의도 모래톱의 모래를 가져다 높이 16m, 둘레 7.6km의 둑을 쌓고 110일 만에 그 안쪽에 87만여 평의 ‘새 여의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 주민 1200여 명은 봉천동과 신정동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 1970년에 서울대교가, 1981년에 원효대교가 완공되었다. 이로써 여의도는 한국의 정치·경제·언론·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건립되기까지

제헌국회 때부터 협소한 회의장과 시설 미비 등으로 국회 운영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기에 국회의 권능에 부합하는 의사당을 신축하는 것은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다. 1959년 제4대 국회 당시 남산을 의사당 건립 대지로 선정하고 설계와 대지 정치공사 일부를 시행하였으나 5·16에 의한 국회 해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개원한 제6대 국회는 태평로의사당을 계속 사용하였다.

또 제6대 국회는 국회의 운영을 종래 본회의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바꾸면서 국회의 조직과 기구가 확장되고 직원 수가 1096인으로 대폭 증원됨으로써 청사 부족은 점점 심각

해졌으며, 이러한 청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당 신축론이 다시 대두되었다.

의사당 건립 에피소드들을 소개하자면, 7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선우중원 전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동양 최대의 국회의사당을 세워 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로써 1966년 2월 제 6대 국회에서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의사당 건립은 박차를 가하게 된다. 여러 곳을 후보지로 타당성조사를 벌인 결과 1968년 4월 여의도 양말산 일대 10여만 평으로 확정된다. 의사당 부지 10만 평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넓은 터였는데, 남북통일과 양원제에 대비함과 동시에 의원회관과 도서관 등 기타 부속 건물의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계속 늘려갈 수 있게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설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 설계안에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5층이었고 돔도 없었다고 한다. 원로 건축가 안영배 씨의 구술집에 따르면, 설계도면을 본 국회의원들이 ‘왜 돔이 없느냐?’며 한마디씩 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 등의 의사당을 둘러보고 온 의원들은 우리 의사당에도 돔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돔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 이 구술집에는 최종도면을 청와대에 올렸더니 박 대통령이 ‘중앙청 건물이 5층인데 그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느냐. 한 층 더 높여라’고 했다는 일화도 실려 있다. 결국 최고 통치자와 국회의원들의 입김 때문에 원래 설계안은 ‘짜깁기’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1969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기공식을 한 국회의사당은 1975년 9월 1일 준공식을 갖게 되니 만 6년간의 대역사였다. 이런 의사당 건설에 들어간 예산은 당초 101억 원이었으나 석유파동, 환율상승, 임금상승 등으로 1975년 준공 시에는 135억 원이 들었다. 이는 당시 한 해 예산 1조 300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선우 총장은 건설을 맡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책임자를 불러 ‘절대 하청을 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총장은 ‘새 의사당만큼은 국산 자재와 우리 기술만으로 짓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산 대리석이 이태리산 대리석보다 비쌌고, 그나마 국내산은

물량도 부족해서 소청도 대리석은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은 이태리산을 쓸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의사당 공사를 위해 모인 숙련된 석공이 250여 명 정도였는데 이는 전국의 석공을 모두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일반 인부들을 숙련시켜 가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의사당이 완공되었을 때는 숙련된 석공이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의사당 신축이 석공기술자를 양성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국회의사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물이 해태상이다. 의사당 정문에 들어서면 ‘그른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밝힌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상징하는 한 쌍의 해태상이 서 있다. 해태상은 화재와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선우 전 총장의 회고록 ‘격랑 80년’에 따르면 이 해태상은 소설가인 월탄 박종화 선생의 제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해태상 건립 예산이 따로 없었던 선우 전 총장은 해태가 해태제과의 상징인 점을 감안해 당시 박병규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박 사장이 흔쾌히 협조하면서 제작됐다. 실제 제작은 서울대 미대 이순석 교수가 맡았다. 국회 해태상은 경북궁 해태상과는 다른 점이 있다. 암수 구분 없이 앉아 있는 광화문의 해태와는 달리 이곳의 해태는 암수 한 쌍이 네 발로 꼳꼳이 서 있다. 아마도 국민이 뽑은 선량을 앉아서 맞기가 민망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국회 해태상 기단 아래에 포도주가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데, 이는 사실이다. 1976년 발간된 ‘해태 30년사’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해태상을 설치할 즈음에 해태주조(주)의 생산제품인 노블와인 백포도주를 해태상 기단 아래에 각각 36병씩 72병을 묻었다고 기록돼 있다. 기단 아래를 10m 정도 파고 그 안을 석회로 봉토한 후 특제 향아리를 넣어 백포도주를 한 병 한 병씩 석회로 감싸 향아리에 넣고 봉했다고 한다.

또 ‘해태 30년사’에는 백포도주를 묻은 이유에 대해 “해태가 예로부터 화기를 쫓는 호신상이고 백포도주는 화기를 삼킨다는 고사에 따라 모처럼 순수한 우리 기술진만으로 설립된 의사당을 영구히 보전한다는 뜻에서 백포도주를 묻게 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백포도주는 국회의사당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75년에 개봉된다. 와인 전문가에 따르면 70~80%의 습도, 15~16도의 온도 등이 지켜지면 100년이 넘어도 와인의 맛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

다고 한다. 헌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임기가 늘어나지 않는 한 제34대 국회의원들은 100년 묵은 와인으로 축배를 드는 ‘빅 이벤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속기계의 변화

지난 51호 속기계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속기계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에 이어 1980년대 청문회제도 도입과 지방자치 실시, 1990년대 컴퓨터속기 등장을 키워드로 잡고 조명해 보고자 한다.

- 청문회제도의 도입과 속기

1987년 6월에 있었던 평화대행진과 그로 인해 파생된 6·29선언으로 민주화라는 민의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민주화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5공 단절에 대한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여 청문회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1988년 6월 13일 헌정 사상 최초로 청문회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988년 4·26 총선에 의해 성립된 제13대 여소야대 국회는 수십 년 만에 거수기 국회에서 벗어나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예상대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광주항쟁과 5공비리 진상규명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88년 11월 20일 당시 문교공보위원회가 1980년 언론인 해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청문회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히 언론 사상 최초로 생중계된 ‘5공비리’ ‘광주문제’ ‘언론문제’ 청문회는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국회 청문회는 한계도 있었지만 성과도 컸다. 마치 대의정치시대를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되돌려 놓은 듯한 감마저 주었다.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행정부의 시녀로 비하되던 정적인 국회의 이미지를 보다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부각시켜 놓은 계기도 되었다. 또 비리나 음모가 부분적으로 폭로되어 밀실정치를 공개정치로 유도하여 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드높였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청문회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연일 밤을 새워 가며 현장에서 속기를 담당하던

국회 속기사의 모습도 TV로 전국에 생중계되어 당시 속기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속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일반인들에게 속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주어 속기의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 지방자치 실시

1990년 정기국회 회기 말인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 등 지방자치제 관련한 3개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961년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만 30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30년 만에 주민의 직접선거로 260개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시·도 의회가 일제히 개원되었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속기인의 활로가 넓어지게 됐다는 기대감으로 속기계는 사뭇 들뜬 분위기였다. 그러나 준비도 없이 속기업무를 담당하게 된 지방의회 속기사들은 속기업무 외에 많은 양의 다른 업무를 겸직해야 했다. 게다가 지방의회 속기사는 국회 속기사와 달리 기능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속기계에서는 속기직을 일반직화하는 직제 개정을 위해 대한속기협회와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 컴퓨터속기의 등장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법이 제대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즉, 1994년 초에 정상덕, 최광석, 손석련 등이 '워드픽처(CAS속기)'를, 안문학이 '감퓨터'를, 박해동이 1996년에 '모아치기'를 내놓으면서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이들 방식의 특징으로는 CAS와 감퓨터가 애초부터 키보드의 자판 배열이 일반 키보드와 다른 독자적인 3벌식 방식이고, 반면 모아치기는 일반 키보드의 자판 배열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합해서 입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1994년 정상모가 '스피드워드(빠른손워드속기)'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속기업무 개념보다는 문자방송을 위한 고속입력에 착안한 것으로 일반자판을 이용하여 동시에 모아친

다는 점이다. 빠른손위드속기의 자판 배열은 일반 키보드와 같지만 빠른손위드속기는 이용자가 마음대로 약자를 프로그램에 등록 또는 변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컴퓨터속기 쪽에서 신문에 '치면 바로 번문되어 나온다'고 광고를 하고 국회 고위층과의 서신과 면담을 통해 국회 속기사 채용시험에 '컴퓨터속기'도 응시하게 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95년 국회 속기과는 수필속기 4명, 컴퓨터속기 4명을 각각 채용하였다. 1997년 채용시험에서는 수필속기 2명, 컴퓨터속기 2명이 채용되었다. 이렇듯 컴퓨터속기사가 차츰차츰 국회에 들어와 지금은 속기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기자수첩을 돌아보며

2013년 홍보부 기자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기획 회의를 했는데 임시의정원→제헌국회→태평로국회→여의도국회로 4년짜리 기자수첩 시리즈물을 써 보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에 홍보이사님은 흔쾌히 해 보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때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쉽게 내뱉었을까? 4년 동안 내가 한 말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중압감이 계속 맴돌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매해 기자수첩을 쓸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생겨 원고를 써내서 순간마다 돌파해 냈다. 그리고 이번에 4년 차 시리즈물을 마감하게 되었다.

막중한 4년 치 홍보부 기자 일을 무사히 털어 내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더불어 4년 동안 이 원고를 쓰면서 속기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긴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높은 곳에 가야 멀리 볼 수 있듯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은 힘들지만 확실히 전에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거시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나에게서는 가장 큰 소득이다.

이런 소득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속기계를 통해 다른 속기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란다. 또 그것으로 인해 다른 속기사분들이 유익한 정보나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면 나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13.
선우원중, 『선우원중 회고록: 격랑 80년』 삼화출판사, 2009.
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속기 50년사』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1998.

2. 학위논문

- 이승환, 『국회의사당의 풍수지리학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국도의 형국론과 여의도 및 국회의사당의 좌향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3년 8월.
송기형,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배경과 건설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8월.

3. 정기간행물

- 김중해, 「양원제와 통일까지 대비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국회보』, 2014년 8월호.
김중해, 「1975년 9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정치의 여의도시대, 막을 올린다」 『국회보』, 2011년 9월호.
김중해, 「여의도 의정(議政) 시대가 열리기까지」 『국회보』, 1999년 7월호.

4. 신문기사

- 아시아경제, [정치][국회 다시보기]1. '너섬 1번지' 국회를 아십니까?, 2014년 6월 23일자.
아시아경제, [정치][국회 다시보기]3-①. 박정희, 의사당 돔 천장 지을 때 석굴암 벤치마킹 지시, 2014년 6월 24일자.
THE FACT, [국회 입소문] 국회 해태상 밑에 와인 '있다? 없다?', 2014년 8월 18일자.

※ INTERSTENO 가입과 국제교류

대한속기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속기계 발간, 한글속기학술세미나 개최, 국제 인터스테노 참가가 바로 그것이다. 50호 특집 속기계에서는 대한속기협회의 설립과 속기계의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51호 속기계에서는 한글속기학술세미나의 개최 내력에 대해서 조명하였다. 이번 52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속기협회가 INTERSTENO에 가입한 과정과 국제교류에 관해 소개하면서 협회 사업을 설명하는 코너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먼저, INTERSTENO(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tenography and Typewriting)란 ‘국제속기타자연맹(國際速記打字聯盟)’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UNESCO에 가입된 민간단체로서 유엔헌장 정신에 따라 속기·타자 분야에 관계되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관한 연구 보고를 행함과 동시에 전 세계 속기인의 결속과 정보 교환 및 친선 도모, 속기인의 권익 신장을 강구하는 국제기구이다. 회장직은 총회가 열리는 나라에서 맡고 있으며, 1887년 런던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중앙위원회는 매년,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총회 때마다 속기 및 타자의 국제대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속기인의 국제적 조직이 태동한 연원은 다음과 같다. 근대 속기법식의 시조로 불리우는 영국인 티모시 브라이트(Timothy Bright, 1550~1615) 박사의 최초 근대 속기저서인 『기호: 기호에 의한 간략·신속·비밀속기법』의 발간(1588년) 300주년과 현대 속기법식의 시조인 아이작 피트맨(Isaac Pitman)의 피트맨식 창안(1837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887년 런던에서 11개국에서 135명이 참석하여 제1회 국제속기회의를 개최하였다.

INTERSTENO의 발전과정을 요약해 보면, INTERSTENO는 1887년 런던의 국제속기회의에서 출발하여 1931년 파리회의에서 ‘만국속기자연맹’으로 개편된 데 이어 1955년 모나코회의에서 비로소 INTERSTENO 규약 제정과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명실상부한 속기인의 국제모임으로 발돋움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INTERSTENO의 역사는 1955년 모나코회의에서 INTERSTENO의 규약을 제정한 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대한속기협회는 70년대까지만 해도 INTERSTENO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1980년 7월 15일 INTERSTENO 회장으로부터 대한민국국회 사무총장 앞으로 의회 속기사의 지위, 속기록 작성 방식, 속기사의 봉급 수준 등을 포함한 장문의 양케이트가 접수되었다. 이어서 1981년 4월 27일 대한민국국회의 속기사 대표가 당년 7월 서독 만하임에서 열리는 제34차 총회에 참석해 주기를 희망하는 공문이 수신됨에 따라 속기협회는 큰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서신 교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81년 5월 8일 협회는 INTERSTENO의 가입 절차, 활동 상황, 규약 등에 관해 문의했고, 그 결과 5월 26일 규약(Covenant)을 비롯한 INTERSTENO 전반에 걸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34차 총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은 협회는 즉시 이 기구의 가입과 34차 총회에 참석할 것인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시기 촉박 등의 이유로 34차 총회에는 불참하고, 이듬해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과 다음 대회 때는 꼭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어 다음 해인 1983년 3월 7일 스위스 INTERSTENO 조직위원회로부터 제35차 총회 초청장과 프로그램을 받았다.

마침내 1983년 제35차 INTERSTENO(스위스 루체른) 총회에 박권흠 회장 외 2인의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에 7월 16일 중앙위원회는 박권흠 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선임하고, 7월 16일 총회에서 한국의 INTERSTENO 가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NTERSTENO의 National Group으로서 2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속기협회가 INTERSTENO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음으로 IPRS에 가입하게 되었다. IPRS라는 부서는 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의회속기사부)으로 1993년 제40차 이스탄불 총회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한국은 그해 40차 총회에 참가하여 IPRS에 가입하게 되었다.

IPRS의 설립동기는 1977년에 열린 제32차 INTERSTENO 로테르담 총회에서 의회에서 의 기록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후에 의회 관계자들이 격년제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1981년 앞서 우리나라 국회에도 온 바 있는 앙케이트를 통하여 22개국 의회기록부서의 조직과 업무방식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되면서부터 더욱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접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의회기록국이 IPRS의 회원이 되면 규칙적으로 연구성과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1995년부터 IPRS의 회원이 되려면 300DM(도이치마르크)를 지불해야 한다. 이 회비는 부서의 경비, 즉 우편요금·출판비용에 소요된다. 회비의 화폐단위를 DM으로 정한 것은 국제연맹 사무실이 독일의 본에 있고, 사무총장이 회계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IPRS의 회비는 오로지 그 부서의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INTERSTENO 총회는 개최 장소만 다를 뿐 일정은 매번 유사하다. 첫날 오전에 1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규약을 개정하고 신규 가맹국 등을 소개하며, 오후에 개회식을 한다. 2일 차에는 속기 및 워드프로세싱 경연대회와 각국 의회속기사 회의가 있으며, A그룹(전문부문)과 B그룹(비전문부문) 간 속기경연대회와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환영리셉션이 있다. 3일 차에는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며, 거기에서 전기 총회의 의사록이 통과된다. 또한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장의 보고와 조직위원회의 보고, INTERSTENO의 활동 보고가 있게 된다. 그리고 2년 후에 열릴 다음번 총회지와 다음 해에 열릴 중앙위원회 회의장소를 결정

한다. 4일 차에는 속기에 관한 각국의 연구발표회가 있게 된다. 5일 차 이후에는 연구발표회 후에 오후에 총회가 있게 된다. 이렇게 6박 7일로 이어지는 회의와 경기대회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 있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한다. 물론 비용은 자기부담이다.

1983년 제35차 루체른 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가 INTERSTENO에 가입한 지도 어언 30여 년이 지났다. 이제는 전 세계 속기인들의 잔치인 INTERSTENO에 참가하여 선진 속기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민간 외교사절로서 국위선양에 힘쓸 기회까지 갖게 되었다. 이제 대한속기협회는 국회 의정기록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법원 속기사나 사설 속기학원의 회원들과도 교류를 넓혀 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속기사들이 INTERSTENO 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회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 개개인 또한 외국 속기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명실상부한 교양 있는 속기인이 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겠다.

속기사 지망생이 바라본 한글속기학술세미나!



김은주

속기 연습에 한창이던 어느 날 원장님이 ‘한글속기학술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좋은 분들을 뵈고 조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추천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벌써 속기 선배님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가도 되는 걸까 싶어 잠시 망설였으나 원장님의 말씀대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하늘이 맑던 5월 22일, 한글속기학술세미나가 열리는 홍원수련원으로 떠났다. 아직 속기사를 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게는 무척이나 설레고 떨리는 길이었다. ‘한글속기학술세미나’라니, 얼마나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까?

홍원수련원에 도착하니 많은 속기 분야의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아직 내가 속기사들이 모인 자리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았다. 어리둥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받아 보는 <속기계>와 주제발표집, 배지와 기념품으로 주어진 우산을 품에 안아 들고 잠시 숙소에 들러 짐을 풀었다.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는 너무나 완연한 초록색이라 일상에 치이며 바쁘게만 움직이던 머리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경치를 조금 더 구경하고자 밖으로 나서는 길에 처음 뵈는 분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다. 모두 낯선 이의 인사에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경치 좋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다 보니 많은 속기사분들을 만나 뵈 수 있었다. 국회, 지방의 회, 자막방송, 속기사사무소, 복지대학교 교육속기사님들과 원로 선배님들, 나와 같은 속기학원커뮤니티 소속 학원생들까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는 많은 속기사분들을 뵈고 또 그분들께 이야기를 듣는 영광스러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꿈에 그리는 일을 평생 해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자니 그 순간이 그렇게 벅찰 수가 없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니 미소로 화답하여 주셨다. 그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강당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강당에 들어서니 앞에 걸린 “제23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국의 속기사들이 모인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상태였다. 얼떨떨한 기분인 와중에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들어 본 적 없던 국민의례와 애국가 그리고 조영기 이사장님의 개회사까지 들으니 ‘내가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여기는 정말 속기사들이 모이는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다.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김주미 선생님께서 ‘21세기 사관을 위한 어문 규범’을 발표해 주셨다. “사관”, 김주미 선생님께서는 속기사들을 ‘21세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고 칭하셨다. 앞서 발표장 앞에서 받은 ‘속기계’ 뒤편에 적힌 문구가 생각났다,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속기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임무를 지니는 사람이구나. 나는 훌륭한 사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걸까?’



김주미 선생님의 발표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짧게나마 나의 우리말 실력을 테스트할 시간이 주어졌다. 30개의 문항은 2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 식으로 출제되어 있었다. 일단은 자신감 있게 답을 척척 체크해 나갔다. 물론 중간중간에는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드는 단어들

도 있었다. 낯선 어휘도 있었고 자주 쓰는 어휘이나 받침이 헛갈리는 단어들도 있었다. 체크를 마치고 나니 김주미 선생님께서 돌아다니시며 한 명 한 명에게 답을 물으셨다.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분도 계셨고 의외로 쉬운 답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셨다. 답을 체크하면서 김주미 선생님께서는 약간의 어문규정을 덧붙이며 유익하게 설명하여 주셨다.

‘첫돌’과 ‘사글세’는 표준어가 변경된 어휘였다.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사이시옷’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남성을 가리키는 ‘수’는 숫염소, 숫양, 숫쥐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컷을 뜻하는 ‘수놈’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수사돈’이라고 처음 보는 어휘도 있었는데 이는 사위 쪽 사돈을 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암사돈’은? 며느리 쪽 사돈을 뜻한다. 또 사이시옷에서 자주 헛갈리는 ‘전세방’과 ‘전셋집’은 두 단어가 고유어와 고유어 혹은 고유어와 한자어인 경우에만 사이시옷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인 ‘전세방’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

자주 오류를 범하는 ‘윗/웃’은 위아래의 대립이 있는 단어에는 ‘위/윗’을,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에는 ‘웃’을 쓴다. 입술은 위의 입술과 아랫입술이 있기 때문에 ‘윗입술’이 맞는 표

현이지만 곁에 입은 옷을 뜻하는 단어는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옷옷’ 이고 반대말은 ‘속옷’ 이다.

두음법칙 적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다. 자주 쓰이는 ‘연도/년도’ 는 ‘입학연도’ 와 ‘신년도’ 가 정답이었다. 또 ‘량/양’ 혹은 ‘란/난’ 의 경우 앞의 말이 고유어나 외래어이면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한자어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구름양’, ‘어린이난’ 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었으나 ‘작업량’ 과 ‘비고란’ 은 그대로 쓰였다.

이 외에도 ‘안/않’ 의 사용, 동사를 밝혀 써야만 한다는 것, 발음상의 오류로 헛갈리는 ‘부치다/붙이다’ 등 발표는 속기를 함에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유용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의 점수는 30점 만점에 26점이었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어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한글은 자음 19개, 모음 21개, 받침 27개로 이루어져 있다. 받침이 없는 글자가 399개, 받침 있는 글자가 10,773개로 총 11,172개의 글자가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글자는 약 2,350개 정도뿐이라고 한다. 자음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구분되고, ‘아이’ 와 같은 단어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고 ‘읽’, ‘일’ 같은 단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본다 고 한다. 늘 사용하고 있는 언어지만 이렇게 세세한 내용은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나의 모국어에 대한 무지에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김주미 선생님께서는 2015년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원래 표준어에는 ‘눈두덩’ 과 ‘빠치다’ 만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최근 ‘눈두덩이’ 와 ‘빠지다’ 라는 표현도 표준어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또 특정한 의미 있는 낱을 표시할 때 쓰던 가운데띠점(·)은 이제 온점(.)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선생님께서 이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한글에서 낱자를 구분 지을 때 Ctrl+F10을 눌러 가운데띠점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다들 공감미 되는 듯 큰소리로 웃으셨다. 60분간 진행된 발표임에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

도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한글이 실생활에 더 알맞도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한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잠간의 쉬는 시간 후 두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나오신 강병호 센터장님께서 ‘교육속기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유기적 협력’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다. 한국복지대학교는 500명 정원에 30%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자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교육속기 분야의 확대가 전망된다고 하셨다. 현재 한국복지대학교 소속 교육속기사들은 정규직과 계약직 두 가지 형태로 근무 중이고, 정규직의 경우 ‘조교’ 직함으로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한다. 3개의 발표를 들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

라 시간상 많이 축약하여 발표하셨으나 교육속기계의 전망과 그 분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속기사분들의 부단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발표였다. 마지막 발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회의진행과 의사실무’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실제에 대해 실무에서 느끼는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의 과정 등을 강의해 주셨으나 아직 실무 속



기를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었다. 원장님께서 이 발표는 실무 속기사분들께는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 귀뜸해 주셔서 열심히 들어 보려 했으나 결국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에 모였다. 이전 세미나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쉬웠으나 대신 식당에는 삼겹살과 각종 반찬, 야채들이 한 상씩 거하게 차려져 있었다. 같은 속기학원생들과 함께 배부르게 삼겹살을 먹으며 서로 속기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속기’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학원생들임에도 쉽게 친해질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인천속기학원 출신의 국회 속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히 자신의 국회 속기직 준비 과정을 얘기해 주셨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나긴 속기 공부에 지쳐 있던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방에서 뒤풀이가 이어졌다. 바쁜 일정 속에 이야기를 오래 나누지 못했던 원로 선배님들과 현재 각종 속기 분야에 재직 중이신 선배님들과 보내는 시간이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선배님들이 속기를 공부했던 과정에 대해서 듣고 현재 속기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꿈꾸고 있는 세계가 이런 곳이구나’를 느끼며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늦은 시간까지 웃음꽃을 피운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 근처 파주삼릉으로 산책을 나갔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든 탓에 약간 피곤했지만 푸른 내음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1박 2일의 짧지만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점심 장소로 이동했다. 이제 곧 세미나가 끝인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커졌다. 어릴 적 몇 날 며칠을 설레며 기다리던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긴장과 설렘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세미나는 식사 후 선배님들의 자국은 농담과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다시 국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이틀간의 짧지만 강렬한 추억을 되새겨 봤다. 사실은 매일 이어지는 속기 연습이 쳇바퀴 같다고 느낄 즈음이었다. 그래서인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뜻대로 연습 성과가 나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차에 참석하게 된 세미나였다. 오기 전에는 낯섬과 긴장에 머뭇거리자기도 했지만 막상 이틀을 보내고 나니 참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기자격증 취득에만 열을 올리던 날들 사이에 실무에 관한 이야기와 현직 속기사분들의 이야기, 취업 정보까지 들을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나를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미나 내내 바쁘게 뛰어다니셨던 준비기획단분들과 어린 학생들의 궁금증 어린 눈을 지나치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풀어 주셨던 선배님들, 같은 길을 걷는 만큼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속기학원커뮤니티 소속 학원생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봄, 윤중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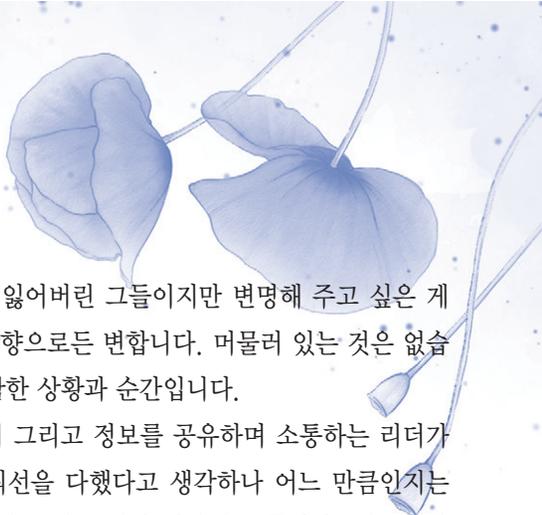
윤승희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봄입니다. 꽤 오래 윤중로에 벚꽃과 사람으로 봄비는 봄을 맞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겪는 한 차례의 흥역 같은 아픔도 지나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봄은 기쁨보다 안타까움이 많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연극을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1953년 부산을 출발한 환도열차가 2014년 서울 수석역 기지창에 도착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도열차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 후 전쟁으로 무너진 삶이 전쟁 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안고 부산을 떠난 기차입니다. 전쟁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에 있는 헤어진 남편을 찾아 여주인공이 60년의 세월을 건너 도착합니다. 60년이 지난 서울에 도착한 열차, 60년 전의 사람이 바라본 서울과 사람들의 상황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여주인공은 아직도 전쟁 중인지를 물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여주인공의 바람은 헤어진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90살이 다 된 남편은 전쟁 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먹고살기 위해 죽은 친구의 이름을 빌려 돈과 권력에 함몰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버린 상황 속에서 큰 혼란을 겪은 여주인공은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연극이 모두 끝난 후 배우들의 무대인사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변해 가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들이지만 변명해 주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어느 방향으로든 변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만드는 것도 또 나를 포함한 상황과 순간입니다.

1년 전 저는 구성원들과 함께 발전해 가는 리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어느 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8박 9일의 무제한 토론을 함께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기도, 아니기도 했지만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해 한 해 또 다른 임시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때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득 사기열전에 나오는 '맹상군'이 생각납니다. 맹상군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제나라의 왕족으로 선비들을 우대하여 3000명의 빈객을 거느렸다는 정치가입니다. 그중에는 개 울음소리와 닭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이들은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맹상군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 준 것은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재주를 가진 이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풍환'이라는 아무 재주 없어 무시 당하는 식객이 있었는데 맹상군은 그를 항상 후대하였고, 한번은 돈을 주어 영지로 보내 가장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맹상군에게 가장 부족한 의(義)를 사 왔다고 하며 맹상군의 영지에 가서 그 돈만큼 백성들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맹상군이 영지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영지의 백성들은 칭송으로 보답했고 이후 풍환은 두 번이나 더 맹상군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때 순간을 선입견과 편견 없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중로에 또 새봄이 올 것입니다. 겉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벚꽃도 사람도 한 뼉 한 뼉 키도 마음도 자라서 올 것입니다. 다가올 새봄에는 매년 겪는 아픔은 열어지고 기쁨만 가득한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지사 새옹지마

양 세 희

남들과 다르게 속기에 입문하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뉴스에 나온 국회 속기사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처음 속기를 배우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때에 도서관에서 책을 멘토 삼아 나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였다. 책을 읽다 감동받은 구절이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따로 노트에 적어 두는 게 취미였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보려 할 때 일일이 노트를 펴 가면서 찾아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별로 정리하게 되었다. 내가 여태껏 노트에 적은 것들을 컴퓨터 파일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2벌식 키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작업이 꽤 오래 걸렸다. 그러다 문득 더 빠르고 오타도 잘 안 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3벌식 키보드를 알게 되었다.

차근차근 목표 이루기

속기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에 2급을 땀다. 2급도 힘들게 땀는데 1급 따는 것은 너무도 멀어 보였다. 그래서 일단 자막방송에서 일을 하면서 1급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자막방송에서는 입력하는 사람과 수정하는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수정부터 맡았다. 수정할 때 맞춤법, 띄어쓰기, 방송 내용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성없었지만 일이 차츰 익숙해지자 게임하듯이 오타를 고치는 나를 발견하였다. 재미있었다. 그러나 입력으

로 업무가 바뀐 후 이상하게 속기가 재미없어졌고 거기가 연속된 야간 업무로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자막방송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로 속기 키보드를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 한두 달 정도 지나니 꼴 보기 싫었던 속기 키보드가 눈에 들어왔다. 연습이나 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속기 키보드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속기 연습을 하니 흥미가 솟기 시작하였다. 다시 흥미가 생긴 후로 드디어 1급 자격증을 따게 되었다. 자신감이 생겼다. 마침 원장님께서 의회 아르바이트를 추천하셔서 잠깐 의회에서 일해 볼 기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의회 용어가 생소해 내용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회의장에서 긴가민가하던 단어를 사무실에 돌아와 몇 번이고 들어서 알게 되었을 때의 짜릿함을 느낀 후 의회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잠깐이지만 다른 시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나니 국회에 가서도 잘할 수 있겠다 싶어 본격적으로 국회 속기사의 꿈을 키웠다.

국회 속기직을 준비할 때 필기 공부만 할 수 없어서 전국속기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실기 연습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실기 연습이나 해 보자는 마음으로 떨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예선, 준결선, 결선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 결선에서도 역시 차분하게 연습한 대로 경기를 치렀다. 그 결과 운이 좋게도 4등을 하였다. 거기가 대한민국 대표로 세계속기경기대회에까지 나가게 되었다.

국회 필기시험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세계속기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8박 10일 동안 공부는 잊고 경기대회와 헝가리만 생각했다.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국회 속기사분에게 필기, 실기 등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았고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연말에 꼭 봤으면 좋겠다'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동기부여와 합격하



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아서 오직 공부만 하였다. 그런 간절함 덕분일까, 2015년 국회 속기직에 합격하였다.

생각해 보면 2015년은 나에게 최고의 해였다. 세계속기경기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합격! 이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이 도와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국회 속기사가 되고 나서 조금 이지만 기부금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9일간의 필리버스터



한 달여간 연수를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사실 더 떨렸던 것은 회의장에 들어갈 때였다.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는 국회의원부터 행정부 장관까지 내 눈앞에서 보다니 정말 신기했다. 하지만 들뜸도 잠시, 회의장에 들어가면 위원장이 교대했는지, 발언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속기 교대 시간을 간간이 확인해야 하는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제 좀 회의장에서 할 일들이 익숙해질 때 즈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 본회의장을 몇 번 가 보지 못해 항상 아쉬워했던 터라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필리버스터는 나를 참 설레게 했다. 그리고 자막방송에서 야간 근무도 했겠다, 밤을 새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나의 요일 감각은 상실되었고 생체리듬이 깨져 잠을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하였다. 그리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해 보니 2교대 생산직분들의 노고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게 언제 끝나나 그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후기를 쓰면서 9일간의 필리버스터 상황을 되돌아보니 실무 선배님들과 과장님, 특히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 계장님들께

서는 원고가 취합될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날의 마지막 원고를 검토하시는데 그 모습이 멋있고 존경스러웠다.

처음 겪는 필리버스터,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인터넷서점에 필리버스터 책이 발매된 것을 보았다. ‘이 책이야말로 국정교과서다!’, ‘전 국민 필독서’ 등의 댓글을 보니 그간의 나의 노고를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이번 필리버스터 동안 아쉬웠던 점은 고갈되는 나의 체력과 얇디얇은 지식이었다. 앞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신문도 자주 읽어 최고의 국회 속기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조금 늦어도 멈추진 말자

임 고 은

속기와의 운명적 만남

속기와의 만남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극을 즐겨 보아서인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길을 걸을 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아스팔트 길이 200년 전에는 흙길이었을 거야. 그럼 나는 비단옷에 꽃신을 신고 걷고 있겠지?' 라는 상상을 하며 혼자 웃기도 했다. 이런 상상을 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사관에 의해 남겨진 기록 덕분이고, 현재는 국회 속기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속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속기를 시작한 것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젊었을 적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속기를 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셨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다른 길을 가셨지만 그래서 서인지 나를 적극 지지해 주셨다.

그렇게 시작된 국회 속기사를 향한 긴 여정을 이 글을 통해 풀어내 보려고 한다.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자격증 준비 과정은 이려했다. 수원과 서울을 왕복하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하루치 사설을 다운받아 하루에 9시간씩 연습하였다. 처음엔 천천히 글자 위치를 짚어 갔고 조금 어렵다 싶은 단어나 문장은 따로 모아서 교육용 프로그램의 속도를 10자씩 올리며 다른 생각을 해도 손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연습했다. 물론 슬럼프도 오고 하기 싫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은 만나질 정도 기분 전환을 하고 남은 시간은 연습에 집중하도록 했다.

학생의 귀가 되어 주는 교육속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서울대학교 교육속기사로 일하고 있던 지인(현 국회 선배님)의 소개

로 교육속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강의 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과 나란히 앉아 교수님의 강의와 학생들의 발표 등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었다. 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조금 더 신속·정확한 속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에 미리 공부하고 연습했다. 짧게는 50분, 길게는 2시간 이상을 연달아 해야 하는 탓에 체력 저하로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모니터를 보며 필기를 하고 교수님의 농담에 까르르 웃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속기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잘 들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기도 했다.

피해자를 대신하는 조서속기

다음 정거장인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여성과 장애 여성의 진술을 속기하는 일을 했다. 재판장에 아동이 출석하게 될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을 상기 시키게 되고 피의자와 대면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 아동의 출석 대신 속기록이 제출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모두를 담아야 했고, 행동 하나하나와 의성어까지 모두 기록해야 했다. 속기록이 피해자를 대신한다는 사실에 책임감이 커져서 최대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미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행동 표현 방식을 만들어 놓는 등 나름의 노하우를 쌓았다.

미리 경험해 보는 회의속기

국회 속기사로 가는 마지막 여정은 성남시 지방의회 아르바이트였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 무감사 등에 투입되면서 회의의 진행 순서, 발연자 구분, 속기사의 교대 등 회의속기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의원님들의 발언이 겹칠 경우와 마이크 없는 분이 발언하실 경우, 목소리가 작은 의원님의 발언 등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하게 될 일을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긴 터널을 지나 국회로

일에 대한 욕심으로 공부시간을 늘리지 않아 1~2점 차로 불합격이 계속되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고 ‘내 길이 아닌가?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국회 속기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100살까지 살 건데 아직 3분의 1이 지났을 뿐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접고 공부에만 매달리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계획표를 세웠고, 다섯 과목의 공부시간을 분배한 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그날의 분량은 반드시 끝낸다는 생각으로 집중했다.

공부를 시작할 즈음엔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고 있자니 답답했고 우울감에 젖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합격의 순간을 생각하며 공부에 더욱 집중하려고 애썼다. 부모님이 집을 비우시는 일주일 동안 입 밖으로 꺼낸 말이 택배기사님과의 짧은 통화와 슈퍼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인사뿐이었던 때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뿌듯했다. 오랫동안 말을 안 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도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살짝 깼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다 괜찮아’ 라고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 시험 3일 전에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갑작스러운 울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간 꺾꺾 눌렀던 불안과 부담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 듯했다. 어쨌든 시원하게 울고 나니 후련해졌고 나머지 이들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다.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는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했고 바로 실기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오전에는 논설문, 오후에는 연설문, 저녁에는 부족한 부분을 연습했다. 서울대학교와 경찰청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신속·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던 덕에 속기 실력도 향상되었는지 자신감이 붙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시험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실제 시험 처럼 꾸준히 모의고사를 치렀다.

사실 나는 수정 시험 세대(?)라 실기 걱정을 많이 했다. 실시간 시험을 통과한 실력자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꼭 합격해야 했기에 수시로 나 자신을 다독거렸다. '할 수 있어.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자'.

면접 준비는 예상 질문들을 뽑아 답변을 만들고 키워드에 형광펜 표시를 해서 암기했다. 키워드 위주로 외운 후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 실제 면접장에서 응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답변들을 녹음해 들으면서 말의 속도나 발음, 빠진 내용을 살피며 면접을 준비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면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 생각하면 나는 국회를 목표로 너무 많이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때 일하지 않고 시험에만 집중했다면 조금 더 일찍 합격했겠지?' 하는 후회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힘들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걸 견뎌 내면서 성숙해졌고 그 과정을 견뎌기에 국회 속기사가 될 수 있었다. 비록 많이 돌아왔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입사한 지 만 4개월이 지났다. 합격 후 꼭 하리라 다짐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중이다. 며칠 뒤에는 벚꽃 활짝 핀 윤중로를 당당하게 걸으리!



속기란 이름의 탈출구



홍상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국회에 입사한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갓 상경한 대구 토박이라 가뜩이나 어색한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멀리서 국회가 보이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어안이 병병합니다. ‘내 직장이 국회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속기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본 신문기사인데 속기사가 부족해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제 가치관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4학년의 입장에서 진로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도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속기라는 업무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속기자격증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몇 년 전 귀농을 하신 상태였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과 수석이 우선이었고 속기에 100% 집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평일에는 학교 근로를 병행했는데, 속기는 주로 아르바이트 할 때와 평일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인터넷 강의로 짬짬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하반기 한글속기자격시험에 응시하여 3급 자격증을 따고 대학을 졸업한 후 경주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에서 속기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듬해 2015년 4월부터 필기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알았더라면 빨리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얼른 독립하여 여태 친척들에게 끼친 민폐를 만회하고자 막연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2주일에 1회 휴식, 하루 14시간 공부를 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기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갔다가 저녁 9시에 귀가해서 불필요한 개인시간을 되도록 줄이는 동시에 1시간 30분 정도는 꾸준히 속기 연습을 병행했습니다. 7월부터는 유난히 더워서 몸도 쉽게 지치고 입맛도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정도 가벼운 조깅으로 체력 관리를 하였고 몸에 무리가 가는 근력운동이나 과식은 되도록 피했으며 체력 회복에 탁월한 토마토를 하루에 3개는 꼭 챙겨 먹었습니다.

필기 준비는 인터넷 강의로 했고, 교과서를 여러 번 정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 과목 교과서 3회독 후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암기했습니다. 물론 속기도 중요하지만 실기 준비는 필기 합격 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 그때 집중적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첫 번째 관문인 필기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하루의 대부분을 필기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한글속기 1급을 따고 난 후에 필기를 준비하지만 응시자격은 3급이었기 때문에 필기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급이 없는데 어떻게 실기에서 경쟁하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1급을 따는 데에서 오는 안도감보다는 실기시험도 여태 해 온 대로만 한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실력을 키워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굳이 1급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는 필기에 합격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며칠간 속기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 결과는 실기 2주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다라는 가정하에 실기 준비를 했고 며칠 후 필기 합격 통보를 받고 마음 편하게 속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 준비는 뉴스나 TV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서 실기시험과 유사한 회의록 형식을 연습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실기시험에 전날 연습한 회의록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이 출제되었으며 합격을 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1분 자기소개와 속기를 배우게 된 계기, 매스컴을 탄 핫이슈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면접은 차례대로 한 명씩 봤으며 제일 마지막 차례였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해서 준비해 간 멘트를 제대로 못 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면접을 본 9명 전원 다 합격했다는 희소식을 듣고 나처럼 노력한 동기들도 다 잘되어서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이 들었고 항상 친척들에게 얹혀살았었는데 그 보답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뿌듯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입사하고 의정기록과에 배치된 지 벌써 3개월이 됐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회의 경험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속기란 업무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상황

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기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번문을 할 때에도 주무님의 스타일에 맞춰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헛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점은, 물론 신입이고 모르는 게 많지만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하루빨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선배님들과 배울 점 많고 하늘 같은 주무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기들과 근무할 수 있게 된 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힘들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 주셨던 어머님께도 자랑스러운 아들로 올바르게 성장했다고 하늘에 편지를 띄울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문화큰잔치 현장 속으로

유 준 호 기자

‘10월’, 남은 달력 두 장이 아쉽지만 푸른 하늘과 알록달록 낙엽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리고 남자의 계절이라며 사내의 뜨거운 가슴도 울렁이게 하는 그야말로 계절의 꽃인 시기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들 하는데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속기사들은 손마비, 어깨마비, 눈마비, 그야말로 ‘속기마비’의 계절이다. 1년 국회 업무 중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제일 힘든 국정감사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속기마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중한 시기에 이번에는 머리마비까지 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 이름조차 뭔가 목직한 ‘한글문화큰잔치’에 대한속기협회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한글문화큰잔치는 행사명에서도 짐작되듯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9일을 전후로 약 일주일의 기간을 설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이름 그대로 한글 잔칫날이다.

보통의 기념일이 단순히 서로 축하하며 기념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면 한글문화큰잔치는 국어기본법에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위상과 무게에 있어서도 어떤 기념일보다 특별한 잔칫날인 셈이다.

이 큰 잔칫날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언뜻 국가 행사이니까 행정자치부, 국어 관련이니까 국립국어원 등에서 주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아했으나 문화 항목의 하나로 국어 부문을 포함시켜 우리의 글자인 한글의 위상과 중요성에 걸맞게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주최 측 설명에 의문이 풀렸다.

국어정책과는 한글날뿐만 아니라 맞춤법과 표준어 표기, 외래어 규정 등도 다루고 있으며



51호 속기계에도 잠시 소개되었던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인 ‘안녕! 우리말’을 주관하는 부서로 한글 발전의 일등공신 부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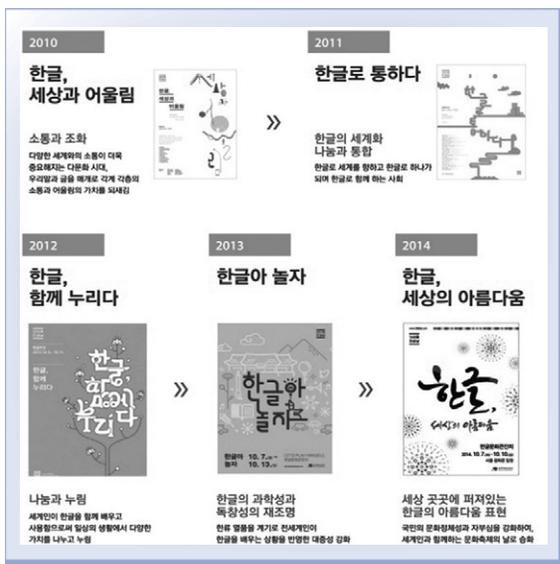
한글문화큰잔치는 2010년부터 캐치프레이즈 형태의 대체목 아래 개최되고 있는데 ‘한글로 통하다’ ‘한글, 함께 누리다’ ‘한글아 놀자’, 그리고 올해는 ‘다 함께 즐기는 한글’로 참여와 어울림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최 측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한창 국정감사 업무에 시달리던 10월, 그것도 모처럼의 휴일이었지만 협회 홍보부 기자로서의 막중한 사명감과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선조들의 깊은 뜻인지 행사 기간 내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행사는 한글날 당일인 9일과 전날인 8일에 주요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데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광화문광장에서부터 한글학회, 서울역사박물관, 고려대학교 등 다양한 장소와 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었다.

행사는 크게 공연마당, 전시마당, 참여마당, 학술마당 총 네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연마당은 이름 그대로 개인과 팀 단위의 각종 공연이 마련된 부문으로 공연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음악, 무용, 춤 등의 한정된 것뿐만 아닌 라디오 공개방송, 국악 뮤지컬 ‘세종 이도의 꿈’ 상연, 마술 공연, 한글 옷 패션쇼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공연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참여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 요원들도 중간중간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와 떠들썩한 공연에 행사 진행의 피로를 씻으면서 임하는





표정들이었다.

전시마당은 단순히 자료와 책만 나열해 놓고 관람하게 하는 일방적인 전시가 아닌 한글 글꼴과 한글 디자인 전시 등 각종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광장 바닥을 활용하여 한글 작품을 만드는 ‘꽃찬길’, 특히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한글놀이터, 책 사인회, 컴퓨터 타자 경진대회 등 흥미로운 요소들로 가득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참가한 참여마당은 공연마당과 함께 가장 인기였는데 행사의 주체가 되어 실제 체험으로 이어지다 보니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온 부모, 연인 등 남녀노소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참여마당은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 광장 곳곳에서 진행되었는데 휘호경진대회, 필통 만들기, 한글이름·가훈 써 주기, 전각 체험전 등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이 이는 소재들이었다. 특히 휘호경진대회는 참가자 모두 한복을 입고 바닥에 지필묵을 놓고



들도 각종 시설물 설치와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오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인파는 국회회의록과 속기기계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지금은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수필속기에 신기해하며 흥미를 보였고 오후 무렵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도 행사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어김없이 화창한 한글날 당일인 9일, 9시쯤 도착하니 막 준비를 시작하는 팀부터 예행연습하는 팀까지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글날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감기 기운이 있던 나는 전날의 여유 있던 오전 상황을 생각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왔을 때는 완전 판판, 부스 앞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것이었다. 미처 준비도 덜 된 상황에서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해 나오신 선배님들 특유의 노련함으로 자칫 소란스러워질 수 있었던 상황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었다.

정오 무렵부터는 아이와 함께 나들이 온 가족부터 근처 경복궁을 관람하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 교복을 입은 학생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국회에서 실제 수필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선배님들께서 진행해 주신 명함 만들기 행사는 이틀 내내 줄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타자기와 비슷하다며 속기기계를 눌러 보는 아이와 취업을 위해 속기사에 관심이 생겼다는 학생, 그리고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국회회의록을 신기해하며 보시던 어르신들까지, 정신없이 설명하고 안내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수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낮의 따가움에서 조금씩 시원해지는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2015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실시 결과 보고

권 오 정 기자

I. 연수 개요

- 가. 수료 인원: 117명(61개 의회)
- 나. 연수 기간: 5. 27.(수)~5. 29.(금) [3일, 20시간]
- 다. 연수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II. 연수 목적

- 가. 지방의회 속기실무자들의 회의록 효율성 강화
- 나. 지방의회 회의록 표준화 및 정보공유 방안 마련
- 다. 전국 지방의회 간 소통의 장 및 토론 기회 마련

III. 연수 일정

날짜 시간	5.27.(수)	5.28.(목)	5.29.(금)
09:30 ~ 11:50	등록 및 입교식 (10:50)	의회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박종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교수	지방의회회의록 표준화 및 속기와 IT 융합 윤태원 주식회사 제윤 대표
	특 강 (역사와 기록) 이순영 국회 의정기록1과장		지방의회 지식정보공유 시스템 활용방안 조종희 국회도서관 정보기술지원과 사무관
12:00 ~ 13:30	점 심		
13:30 ~ 15:20	회의운영 실무 이정은 국회 의사과장	회의록작성실무II 오경애 국회 의정기록2과 사무관	건강특강 이홍열 한국육상지도자연합회 회장
15:40 ~ 17:30	회의록작성실무 I - 특이사례 중심으로 - 최윤정 국회 의정기록2과 사무관	한글박물관 참관 (15:30~)	수료식 (15:30~)

1. 지방의회 교육 1일 차(5월 27일)

지방의회 교육 1일 차에는 등록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총 세 분의 강사님께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역사와 기록’이라는 주제로 이순영 국회 의정기록1과장의 특강이 있었고, 오후에는 ‘회의운영 실무’라는 주제로 이정은 국회 의사과장의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최윤정 국회 의정기록2과 사무관의 ‘회의록작성 실무 I -특이사례 중심으로-’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2. 지방의회 교육 2일 차(5월 28일)

지방의회 교육 2일 차에는 ‘의회회의록과 한글 맞춤법’이라는 주제로 박종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교수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록작성 실무 II’라는 주제로 오경애 국회 의정기록2과 사무관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한글박물관 참관이 있었습니다.



3. 지방의회 교육 3일 차(5월 29일)

지방의회 교육 3일 차에는 ‘지방의회회의록 표준화 및 속기와 IT 융합’이라는 주제로 윤태원 (주)제운 대표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지식정보공유시스템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종희 국회도서관 정보기술지원과 사무관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



는 이홍열 한국육상지도자연협회 회장의 건강특강과 수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교육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지방의회 속기사와의 짧은 인터뷰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교육을 마치는 날 옥천군의회 임지은 속기사와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옥천군의회 3년 차인 임지은 속기사는 이번 실무자교육 과정을 손꼽아 기다려 왔고 그런 만큼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임지은 속기사의 개인 수첩에는 본인에게 유익한 교육 내용을 메모했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교육 과정으로는 한글 맞춤법과 특이사례를 중심으로 한 회의록 작성방법을 꼽았는데 그 이유는 의회 회의록 작성 시 궁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교육 후 의회에 복귀해서도 기억 속에 깊이 남을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본회의장 참관이 이번 교육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대가 컸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기 힘든 곳이라는 점에서 아쉬웠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 속기사들이 속기하는 모습, 회의장 내에서 속기사 교대 모습 등을 참관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해주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을 뺏은 것이 미안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인터뷰에 임해 준 임지은 속기사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IV. 기타 의견

-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연수인 만큼 국회의 사례보다는 타 지자체들의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되었으면 함.
- 의회가 아닌 속기사의 업무에 초점을 맞춰 과목을 조정해 주었으면 함.
- 전문성 있는 사이버강의 신설을 요청함.
- 연수 일정을 5일로 늘려서 도·시·군 단위 각 지방의회의 다양한 사례를 교육하면 좋겠음.
- 회의 돌발상황 등 속기사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필요함.
- 타 의회 속기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 녹음, 검수, 인력배치, 업무분장 등 국회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음.
-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육을 더 늘리면 좋겠음. 시간이 부족하다면 타 기관 참관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 연수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과목을 교육받았으면 함.
- 지방 교육생을 위해 마지막 날은 오전 교육만 실시하였으면 좋겠음.

V. 취재를 마치며

홍보부 기사를 맡고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을 취재하면서 느끼는 점은 매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취재가 될지도 모르는 올해 취재에서는 저 또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으려 노력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분량이 아쉬울 만큼 여러 분의 속기사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 글을 통해 많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에 한 번, 3일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한 순간, 한 순간을 소중히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열정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시간이 되도록 협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모든 지방의회 속기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성찰하는 속기사

이근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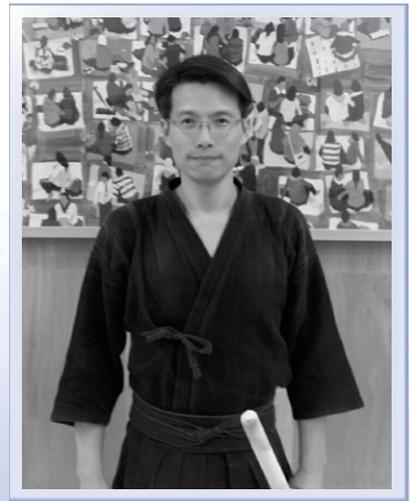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근억 속기사입니다.

얼마 전 '속기계' 기고 제의를 받고 고민 끝에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소질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한참 고민하다가 '속기사로서 내가 살아온 길'을 형식에 부담 없이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제가 '나' 이다 보니 글을 쓰는 데 있어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기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읽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스럽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1998년 2월, 드디어 군대를 제대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속기학원을 찾았다. 입대 전 수필속기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2개월간 속기 연습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터라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고, 제대까지 했으니 빨리 1급 자격증을 따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원로서의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다시 방문한 학원에는 강의실마다 컴퓨터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다들 '다다닥'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어!



컴퓨터학원에 잘못 들어왔나?’ 하는 생각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속기학원’ 현판이 또렷이 보였다.

원장실에 들어가 원장님께 인사를 하고, 지난 2년 2개월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말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금 수필속기 배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컴퓨터속기 시대이니 다시 컴퓨터속기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득해져 가는 정신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였지만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은 허탈하기만 했다.

며칠 방향을 하다가 다시 속기 공부를 시작해 보자 마음을 다잡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나이도 아닌지라 학원비라도 벌 겸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편의점 일을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속기학원에 들러 연습하는 그야말로 야경조독(夜耕朝讀) 하는 시간을 보냈다.

편의점 일이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이, 그냥 서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인기 매출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잘 팔리는 상품을 선정하여 본사에 주문을 넣으면 다음 날 물건이 배송되는데, 그렇게 직접 주문한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지켜보는 슈퍼마켓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새벽 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술 취한 진상 손님부터 마주치지 않았으면 했던 지인(?)까지 별별 사람을 다 보게 된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편의점 주인’이다.

어느 날 한창 일을 하던 중 그분이 나를 잘 보셨는지 “내가 편의점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오픈되면 이곳 점장은 근역이가 맡아서 해 봐” 이라는 것이다. 그냥 웃고 넘겼는데, 다음 날도 편의점 주인이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픈하려는 가게에 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 300만 원만 투자를 해 달라 한다. 그 가게가 빨리 오픈돼야 점장 자리도 나올 것 아니냐며 같이 한번 잘해 보자고 진지하게 말씀하시기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내일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죄송한 마음으로 점주한테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며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기다리라 하신다. 그런데 그다음 날 점주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앞 시간에 일하던 직원이 무슨 일인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기에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편의점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 계산대를 접수하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편의점 주인이 빗을 지고 못 갚아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본사에서 편의점 물건을 다 압수한다는 것이란다.

‘뭘, 이런 개떡 같은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분개하였는데, 점주가 그래도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한 말이 정말로 사실이었던 것이다. 사기를 안 당한 좋은 소식!

아무튼 그렇게 불가피한 실직을 당하고 나서 어영부영 마음을 못 잡고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들던 차에 원장님께서 조용히 불러 말씀하시기를 “용산구청에서 속기사 모집을 하는데 수필속기사도 접수 가능하니까 원서 넣어 보세요”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일정에 맞춰 서류 접수를 마치고 드디어 면접을 보는 날이 다가왔다. 시간에 맞춰 면접 대기실로 들어섰더니 6명의 예비 속기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수필속기사로서는 마지막 취업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기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럭저럭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다리다 합격자 통보 연락을 받았다. 정말 뿔 듯이 기뻐다. 내가 공무원이 되다니!

1999년 11월, 첫 출근을 시작으로 7년 약간 못 되는 시간 동안 용산구의회에서 근무했다. 구의회에서는 보통 3~4명 정도의 속기사들이 근무하는데 업무는 상임위원회, 본회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로 나눌 수 있고, 1인 1개 상임위원회 정도의 업무량이 배분된다. 당시 의회 사무국 직원은 18명 정도였는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서 직장 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꿈결 같은 시간이었을까?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새 삼십대 초반이 되었음에도 나의 사회적 위치는 아직도 9급에 머물러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다 보니 9급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2005년 12월 말 큰 결심을 세웠다, ‘내가 갈 길은 국회다.’ 국회에는 속기사들만 120명이 넘는다는데 이런 조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희망에 부풀었다.

2006년 1월 2일 월요일, 첫 출근을 하자마자 국회 속기사 채용계획을 알아보았더니 6월 원서 접수, 7월 필기·실기·면접 시험, 그리고 응시 나이 제한은 75년생 1월부터, 자격증은 3급 이상이었다.

와! 거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6개월만 더 늦게 정신을 차렸으면 나이 제한에 걸려 시험을 못 볼 뻔했다. 그나마 실기는 컴퓨터속기로 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격증이라고는 수필속기 2급밖에 없어 마음에 걸렸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 필기시험 준비와 컴퓨터속기 자격증 취득을 인생의 제1 목표(먹고 자고 싸기보다 우선시되는 절대 의지)로 설정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동영상을 들으며 컴퓨터속기 국가검정 일정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6개월간 필기시험 준비와 컴퓨터속기 자격증 취득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필기시험 준비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고, 그 해 6월에는 컴퓨터속기 국가기술자격 2급 및 1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필기·실기·면접 시험을 치르고 국회 속기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국회 속기사의 의미는 정말 컸다. 직장인으로서 처음 느껴 보는 소속감과 동질감, 선배님들의 애정 어린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7년 차 직장인이었지만 마치 첫 직장을 잡은 느낌이었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했다.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선배님들

에게 업무를 배우고 또 같이 진행하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선배님들의 높은 식견과 순간 대응력에 경탄하고 ‘괜히 국회 속기사가 아니구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샘솟았다.

국회 의정기록과에는 박식하고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 그중에 엄의숙 선배님은 여러 모로 부족했던 후배를 정성껏 지도해 주셨는데 그 깊은 마음과 정에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다.

의정기록과에 1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불만스러운 고민거리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늦은 나이에 입사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적인 문제이기도 했었지만 7년 전 용산구청을 퇴사한 이유와 좀 비슷한 종류의 고민이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 고참 6급 주무관 선배님들의 근무 경력이 대부분 15년 차를 훨씬 넘어갔고 5급 정원의 태부족으로 인한 승진 적체가 심각해 보였다. 그런 상황에 더하여 늦은 나이에 입사한 나의 개인적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앞날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행정자치부 속기사 모집 공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겼고, 촉박한 시간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이 될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확실히 잡지는 못했지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일단 원서를 넣었는데, 3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또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국회를 떠나기 전 많은 선배님들께서 아쉬움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도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지금도 회사 일로 국회를 방문할 때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행정자치부로 전입을 하고 국무회의 운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국무회의는 정부 최고 심의기구이고 정부 입법 및 국가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한다. 국무회의 운영 업무는 국회 업무와 다소 흡사하고 정부 내 의안·의사·기록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회의는 당시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였는데 회의에 앞서 실시하는 국민의례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서 의자를 끌어 앉다가 ‘끼이익’ 소리가 나는 바람에 입사 초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겼다. 당시 의전비서관이 누구인지 눈여겨보는 모습에 식겁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을 회피했다.

2008년 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하나는 ‘공무원 머슴론’ 이고 머슴은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9시 30분에서 8시로 바꾸었다. 보통 회의실 준비는 회의 개최 2시간 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8시 회의라니! 새벽 5시에 일어날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했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의정담당관실에서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경축 행사, 국새 및 태극기 등 국가상징, 전직 대통령 예우, 국가장 업무 등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하나하나마다 규모가 크다 보니 모든 과 직원들이 업무를 배정받게 되고 그로 인해 배우는 행사 경험이 풍부하다.

이곳에서의 적응도 그런대로 잘 진행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기다림 없이 흘러 어느덧 마흔살을 앞두고 있을 때쯤 앞으로 남은 20년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서인지 불안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차츰 불만으로 자라나고 있던 차 어느 출근 날, 청사 건물 로비에서 ‘마음나래상담센터’ 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는데 묘한 흥미가 생겨서 전문가 심리상담을 신청해 보았다. 1주에 한 번,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셨고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주간의 상담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과 변화에 흥미가 생겨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학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있다.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 학사 과정을 신청했고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 중이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헬스, 볼링, 아이스하키 등 이러저러한 종목에 도전을 해 봤는데 2009년도에는 검도를 배울 기회가 있어 입문하게 되었다. 검도는 머리·손목·허리치기와 목 찌름의 득점 포인트가 있고 일류 검도 선수의 공격 속도는 상대의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0.09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팽팽한 기세 싸움 속에서 눈 한번 잘못 깜빡이면 상대의 칼은 벌써 머리카나 손목, 허리를 치고 나간다. 빠른 스피드와 집중력, 한순간의 승부 대결이 매력적이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결합된 몇 안 되는 무척 매력적인 운동이다. 7년간 수련을 한 결과 작년에 무난하게 3단을 땀고 이제는 4단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다.

마흔한 살이 된 지금 지나왔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내가 추구했던 목표들은 언제나 만족과 불만족의 연속이었다. 목표에 도달하면 만족과 기쁨에 행복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며 불만족한 상태에 빠지곤 했던 것이다.

심리상담 과정을 통해 이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현재의 내 모습에 차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그리 높은 곳에 있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종종 사람들끼리 묻는 이야기가 있는데 “행복하니?” 혹은 “생활에 만족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그렇지”라든가 “좀 힘들어”라며 겸손해 한다. 더 깊이 이야기를 해 보면 대부분 힘들거나 좋지 않을 일이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

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까? 진짜로 어렵고 힘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불만족의 시작은 나 이외의 것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에게나 부여된 삶의 목적의 달성 과정에는 개인마다 주어진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만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관념에 사로잡힌다.

행복은 보통 만족, 기쁨, 쾌락의 감정들이 일어날 때 느낄 수 있고 반대로 고통이나 슬픔,

권태의 감정이 일어나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인 만족, 기쁨, 쾌락은 스스로 찾는 노력을 통해서만 다가오는 수동적 성격의 것이고, 고통이나 슬픔, 괴로움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다가오는 능동적 성격의 불행이다.

생각해 보면 만족과 쾌락은 일시적이어서 오래 못 가 쉽게 사라져 다른 것으로 매번 대체해야 하고, 고통과 슬픔은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는 한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 무척 괴롭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없는 중간 구역의 상태에서는 권태로움을 느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흔히 사람들은 권태를 지겨워하면서 불행의 한편이라고 정의하지만 오래 못 가 쉽게 사라지는 감정에 혼을 팔지 않아도 되고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차라리 권태로운 순간이 행복한 순간임을 느껴야 한다고 역설한다.

비관론적인 견해이지만 그동안 많은 비교와 갈등 속에서 힘들어 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권태 속에서부터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제는 나만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고민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을 시작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좁은 식견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편은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고,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 없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런 감정의 원인을 찾고 찾아보니 갇힌 식견의 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기 시작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의 기회가 열립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속기병



이 영 일

안녕하세요? 신의 보직 속기병을 대한민국 제1호로 다녀온 이영일입니다.

사실 군 속기병에 대한 원고 부탁을 받고 어떻게 쓸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는 동생의 부탁이어서 냉큼 수락은 했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속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기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수, 삼수를 하면서 대학 진학에 실패를 몇 번 겪었습니다. 공부를 못했냐고요? 아닙니다. 수능 상위 30% 안에 들었고 서울의 대학에 예비합격도 했었고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는 수석으로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지방에 갈 수 없어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대학에 진학한 친구도 있고, 군대에 일찍 가 전역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지금까지 뭘 한 걸까 하는 자책을 하기도 했고,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나는 실패했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자격증과 합격증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다 컴퓨터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한 시간당 속기료가 공식 금액으로 36만 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속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청와대, 국회, 지방의회 등 전국적으로 속기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 군에 가지 않은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속기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여 한글속기 2급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기병은 나의 운명이었을까요? 자격증 2급 합격 후 어떻게 알았는지 육군본부에서 속기병을 찾는다고 제가 다니던 학원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속기병으로 군에 가기로 확정이 된 날 육군본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새옹지마인가 봅니다. 대학 진학에 쓰디쓴 실패를 겪었지만 컴퓨터속기를 배우게 되었고 그 결과 육군본부 속기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속기병으로 배치를 받은 후의 생활은 대략 이렇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국정감사 외에 평소에는 행정 업무를 맡았고 참모총장님의 회의내용 기록 등 크고 작은 회의에 참석하여 속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국방 워크숍이나 귀빈 방문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타 부대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을 시에는 지원 속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 생활 중 기억에 남는 건 육군본부 국정감사입니다. 군의 국정감사는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 해군 등 각 군 본부와 각 사령부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속기병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할 때면 굉장히 긴박해집니다. 국무위원보다 빨리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사령부로 이동을 하여 속기병의 역할을 다하곤 했습니다. 속기병은 그 어떤 부대의 파견병보다도 왕의 대우를 받아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또 하나, 육군에서의 속기병 활약 소식을 듣고 공군본부와 해군본부에서 지원요청이 오기도 하여 지원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육·해·공 본부는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헬기로 이동을 하지 않고 간부의 인솔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타 지역에 있었다면 헬기를 몇 번 더 탔을 거고 어린 나이인 만큼 그 모습으로도 속기병에 대한 자부심은 더 컸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면 속기를 굉장히 많이 하여서 손에 마비가 올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기록한 속기록은 별을 단 장군들이 집결해 있는 대회의실 화면에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의 오타라도 난다면 큰일이 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군인은 군인이었나 봅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타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군대에서의 속기병 생활로 정확도가 더 높아졌고 속기에 대해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휴가 날짜도 자격증 시험일에 맞추어서 군복무 중 컴퓨터속기자격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속기병으로 근무하면서 간부님들께서 전역하지 말고 계속 속기를 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전역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육군본부라 하면 대한민국 60만 군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속기병은 군의 어떤 분야에서든 인정받으며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을 해서도 속

기와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한다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삼질만 하고 온다고요? 대부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기병으로 입대를 한다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 개발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컴퓨터속기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또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속기를 배우고 속기병으로 복무를 하며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속기병 복무를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대한민국 속기병 파이팅! 전국의 모든 속기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9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오경애 총무·재정이사외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성원 보고, 그리고 2015년 5월 8일 개최된 제23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들과 2015년 7월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3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최기에 회원, 은상 김양수 회원, 동상 김은희 회원,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종목' 2위 손정아 회원, 공동 3위 최기에 회원으로 시상은 이주성 부회장께서 해주셨다.



이후 회의에서는 회장님을 대신하여 이주성 부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순영 의장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오경애 총무·재정이사회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5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와 정상덕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기타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9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후기

홍보부 이사를 맡고 처음으로 발간하는 속기계.

설레고, 기대 반 걱정 반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를 기획특집으로 꾸미느라 홍보부장과 기자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또 표지와 글씨 등 속기계의 변화에 힘써 준 기자들과 필리버스터 대담에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순덕 -

멋모르고 홍보부장이라는 직을 맡아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년.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속기계가 나오게 됐네요!

시간이 흐른 만큼 속기계에 대한 애정과 함께 능력 또한 길러져야 했을 텐데 아직도 책 나오기 직전엔 숨이 턱에 차도록 허덕입니다.

편집회의 할 때마다 한 번의 찡그림도 없이 웃는 얼굴로 작업에 임해 준 우리 보석 같은 홍보부원들 정말정말 감사하고,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저희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 홍보이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업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고마웠고 행복했습니다.

- 조윤희 -

드디어(?) 네 번째 속기계를 완성하고 마지막 편집후기를 쓰게 되네요. 항상 부족했다는 마음과 아쉬움이 가득했는데 이번 마지막 속기계 작업은 유종의 미를 거두려 다들 전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는 이제 작업을 마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속기계에 더욱 애정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그 한 권에 맺힌 여러 치열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오정 -

이번 속기계는 우리 홍보부에서 표지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새롭고 다양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뛰다고 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속기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 기자의 후임으로 들어와 길지 않은 기자 생활이었지만 정말 많이 배웠고, 같이 작업하며 저의 부족함을 메워 주었던 홍보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신동선 -

어느덧 네 번째 속기계입니다. 그만큼 내실 또한 다져졌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기자로서는 50호 출간과 한글문화큰잔치 참가, 개인적으로는 결혼과 아내의 임신 등 기자로 일하는 동안 뜻 깊고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행운이랄까요.

이번 52호는 표지부터 내지 디자인까지 어느 때보다 공 들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만큼 검토해야 할 분량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늘어났지만 부족한 곳 늘 든든하게 메워 주시는 이 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동료 기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유준호 -

누구에게는 한번 쓱 읽어 보고 책꽂이에 꽂아지는 작은 이 책이 저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부 기자로서 처음 참여하게 된 52호 속기계, 표지부터 기획특집으로 구성된 필리버스터까지 홍보부 식구들이 모두 땀 흘려 작업한 만큼 저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특별한 책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조심스레 품어 봅니다.

52호 속기계 파이팅, 우리 홍보부 파이팅!

- 정다운 -

편집후기를 쓰는데 마침 사무실 책꽂이에 51호 속기계가 보입니다. 홍보부 식구들의 땀이 녹아 있는 52호 속기계가 제 책상에, 또 누군가의 책상 한구석에 자리 잡을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52호 속기계는 여러 의미에서 제 인생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책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 손아영 -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대한속기협회 홍보부(국회 의정기록과)
02) 788-2373, 2473

홈페이지 : www.steno.or.kr

이 메 일 : chrissie76@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회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TEL. 02)788-2371~6

제52호

특기세

발행 2016년 5월

발행인 이철우

편집인 한순덕

기자 조윤희, 권오정, 신동선, 유준호, 정다운, 손아영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전화 02)788-2371~6

팩스 02)788-3386, 338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

비매품

제24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축하합니다.

속기사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는 CAS속기사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사이트주소 www.smartsteno.org
 취업상담 02-839-5933

오프라인 / 전국 SMART CAS 속기학원

지역	학 원	주 소	상담전화
서울	안정근속기학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11 (대건빌딩 8층)	02) 3452-2255
	동방CAS속기학원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71길 17 (사당동) 진빌딩 2,3,4층	02) 2055-1991
	영등포CAS속기학원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30 (영등포4가,신중앙빌딩 3층)	02) 2632-4948
	종로스마트CAS속기학원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29, 802호 (묘동, 영신빌딩)	02) 745-0811
	신상카스컴퓨터속기학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 204호 (노랑진동 2층)	02) 823-8741
	마포카스헤정속기학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길 5 법무사빌딩 3층	1566-8701
인천	인천속기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번길 5 (부평동)보성빌딩 5층	032) 503-2999
	한국속기학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8번길 5 (수진동, 1) 4층	031) 757-1064
경기	수원컴퓨터속기학원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향교로 71-1 경기빌딩 2층	031) 268-3131
	고려속기학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62 (의정부)	031) 845-1007
	스마트속기학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7 (고잔동) 덕용빌딩 3층	031) 411-8273
	충주스마트속기학원	충북 충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81번길 4 (사창동 147-9)	043) 264-8271
대전	대전속기학원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93, 3층	042) 254-0425
충남	천안CAS속기학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97 (2층)	041) 555-4575
강원	CAS컴퓨터속기학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34-11 2층	033) 262-1704
전북 전주	전주스마트카스속기학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총경로69 (경원동1사가) 73-1 3층	063) 282-6800
	광주속기학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난로 1가 250-8, 금향빌딩 4층	062) 226-2117
대구	한국컴퓨터속기학원	대구광역시 중앙대로 390 반월당 13번출구 센트럴M빌딩 7층	053) 252-1323
	CAS이정일속기학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28(대명동) 오정형외과 2층	053) 621-7505
부산 울산 경남	한국CAS속기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길 21, 2층 (부전동)	051) 808-2006
	부산스마트카스속기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28번길 7, 2층 (양정동)	051) 465-6057
	한국속기학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67, 403호	052) 261-1839
	고려컴퓨터속기학원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770(합성동)	055) 297-6544

온라인 / SMART CAS 속기학원

학 원	주 소	상담전화
강남 속기예뎬	www.casschool.co.kr	02) 522-1614
종로 속기21	www.sokgischool.co.kr	02) 733-7000
영등포 속기뷰	www.onoffcas.com	02) 2632-4948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371 <http://steno.or.kr>